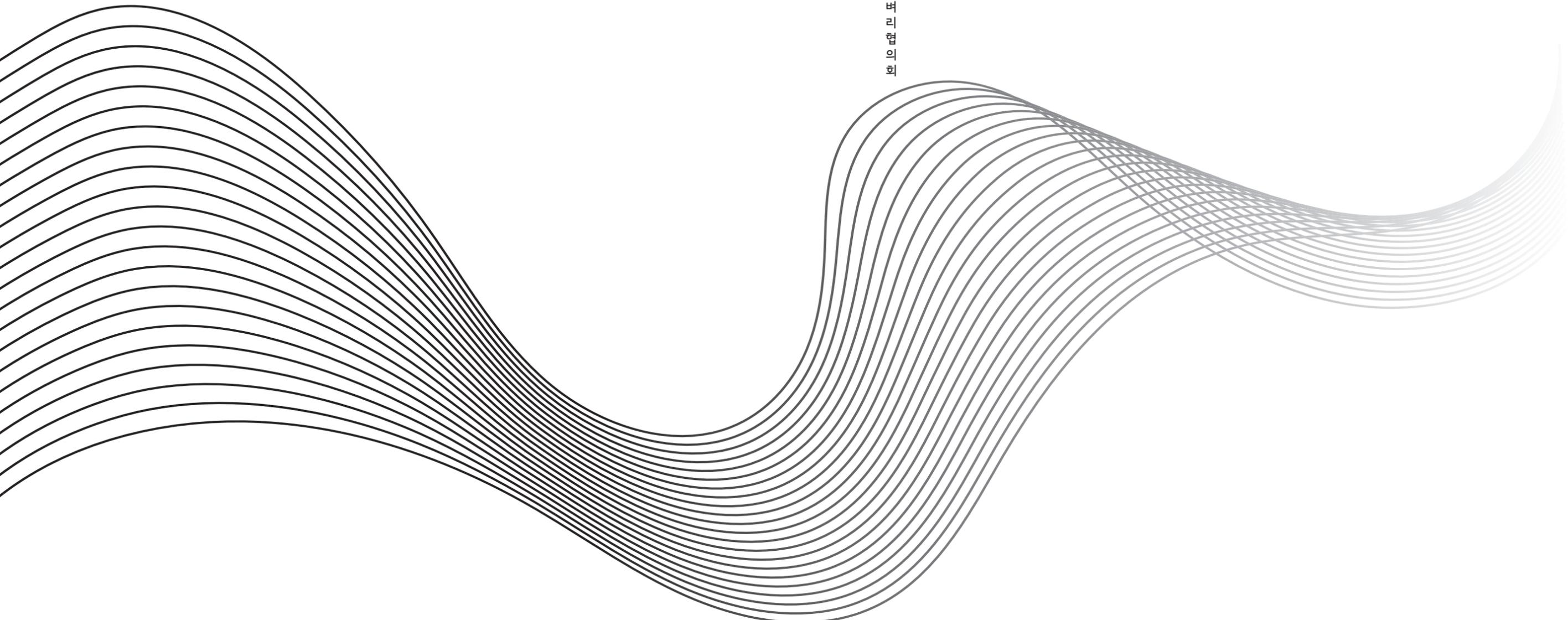


2022

전라북도 문화비리협의회

2022  
전라북도 문화비리협의회



# 전라북도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14개 시·군 문화정책 공유 및 네트워크

2022

## 전라북도 문화벼리협의회 결과 자료집

발행일 2022. 12.

### "벼리란?"

그물을 잡아당기고 모으는 것(≒그물줄)이라는 뜻의 순 우리말로 지역의 문화정책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의 의미를 담음. 문화벼리협의회는 고창문화관광재단, 부안군문화재단, 완주문화재단, 익산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주문화재단과 전라북도 14개 시·군 문화활동가들이 함께 하는 전북문화정책 네트워크로 활동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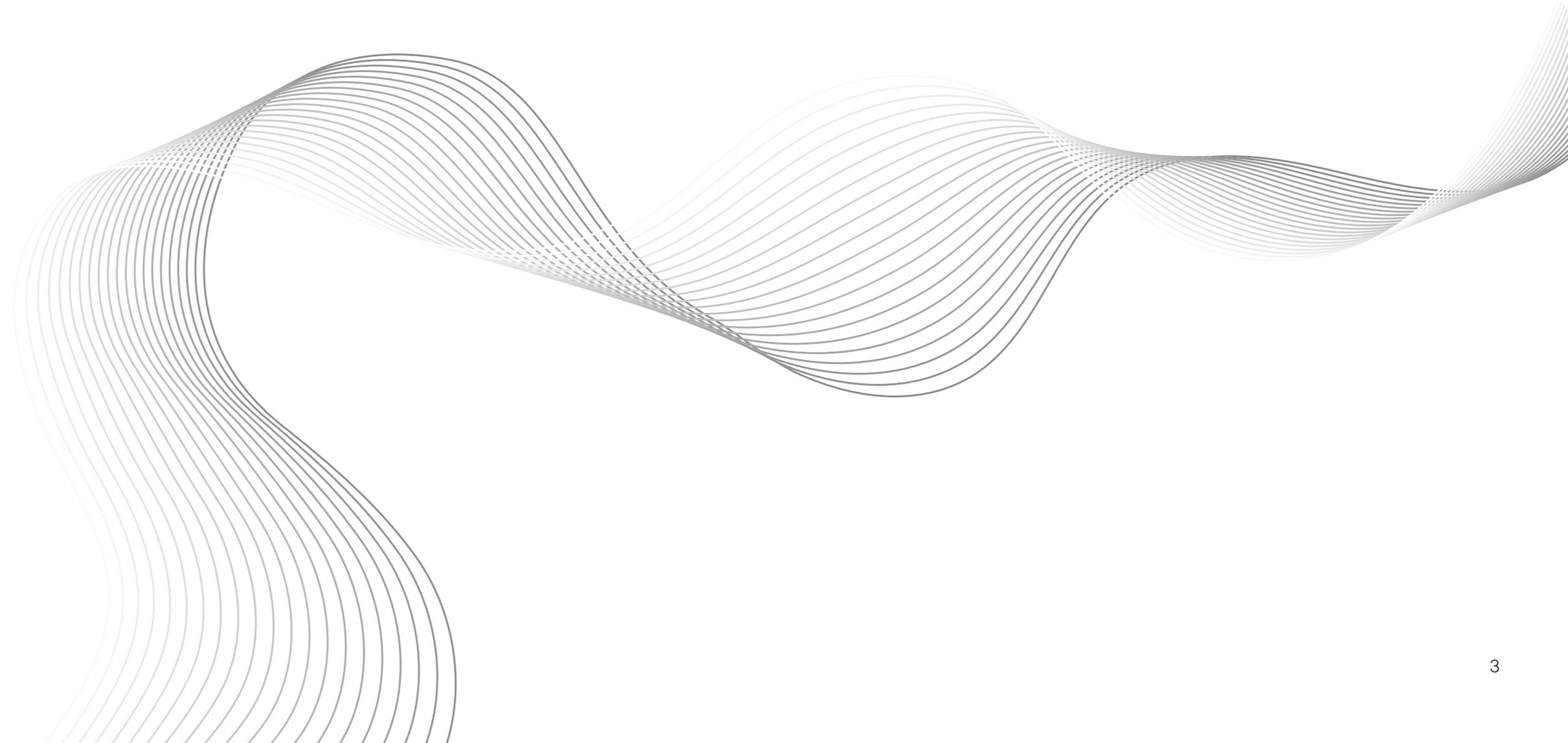
### 전라북도 문화벼리협의회

위원장	권순표(익산)
부위원장	이대건(고창)
위원	김동영(전주), 김찬주(김제), 김춘혁(군산), 김철수(순창), 양진성(임실), 이강삼(정읍), 이민호(부안), 이서하(장수), 이선영(무주), 전별(완주) 함경록(남원), 홍욱진(진안)

# COTENTS

## ○ 사업 개요 및 추진과정

사업 개요 및 추진과정	04
주제 I . 관광산업에 대한 지역 활동가들의 현안과 대응	05
주제 II . 인구감소와 지역문화	23
주제 III . 환경과 생태에 대한 문화예술의 대응	53
부록[포토앨범]	75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2. 9. ~ 12.

**🕒 사업목적**

-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14개 시·군 지역문화 정책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 전라북도 문화정책 협의회를 통한 지역격차 완화 및 지역문화활동가의 역량 강화

**🕒 추진배경**

: 모듬별 주제 선정 문화ברי위원회와 지역 활동가 간 소통을 통해 주요 현안과제 도출 및 과제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논의

**🕒 대상**

: 전라북도 시·군별 14인의 위원과 지역활동가로서 참여한 6인, 기록자 1인

**🕒 주요내용**

- '관광산업에 대한 지역 활동가들의 현안과 대응', '인구감소와 지역문화', '환경과 생태에 대한 문화예술의 대응' 지역별 주요 현안 관련 주제선정 및 모듬별 회의 진행

**📷 관광산업에 대한 지역 활동가들의 현안과 대응**

- 익산 권순표
- 정읍 이강삼
- 완주 전 별
- 임실 양진성
- 부안 이민호

구 분	일 자	주요내용
재단관계자 사전간담회	'22. 9. 13.	- 전북권 간담회를 통해 추진 방향 설정
주제 선정 문화ברי협의회 구성	'22. 9. 21.	- 각 시·군별 문화ברי 협의회 위촉
1차 문화ברי협의회	'22. 9. 29.	- '16년~'21년 사업성과 공유, '22년 사업 운영 방향 논의 등 - '22년 문화ברי협의회 주제 선정 - 각 모듬별 모듬장 선정
2차 문화ברי협의회	'22. 10. 17.(모듬1) '22. 10. 19.(모듬2~모듬3)	- 문화ברי 주제에 대한 구체화 및 방향 논의 - 지역 활동가 섭외 논의 및 사례 공유 - 제3차 문화ברי협의회 운영 협의
3차 문화ברי협의회	'22. 11. 1.(모듬1) '22. 11. 3.(모듬2) '22. 11. 7.(모듬3)	- 각 주제별 지역 활동가 인터뷰 진행 - 제4차 문화ברי협의회 일정 및 운영 방식 협의 - 결과 공유회 행사 장소 및 시간 협의
4차 문화ברי협의회	'22. 11. 21.	- 결과 공유회 행사 운영 및 세부방향 논의 - 기록화 기준 및 결과물 구성 논의
문화ברי 결과 공유회	'22. 12. 2	- 모듬별 문화ברי협의회 결과 공유 및 담화 - 문화ברי협의회 '22 운영 환류 및 '23 운영 제안

모 둠	주 제	지 역
모듬 1	관광산업에 대한 지역 활동가들의 현안과 대응	익산, 정읍, 완주, 임실, 부안
모듬 2	인구감소와 지역문화	전주, 남원, 장수
모듬 3	환경과 생태에 대한 문화예술의 대응	군산, 김제, 진안, 무주, 순창, 고창

## 모듈 1 \_관광산업에 대한 지역활동가들의 현안과 대응

- **참가위원:** 권순표 시각사각 대표(익산), 이강삼 사미프로덕션 대표(정읍), 전별 전스비주얼랩 대표(완주), 양진성 임실필봉농약보존회 회장(임실), 이민호 부안생활문화동호회네트워크 사무국장(부안)
- **지역활동가:** 양희원 전북대 강사(익산), 이주환 부안군문화재단 팀장(부안), 이강삼 사미프로덕션 대표(정읍), 전별 전스비주얼랩 대표(완주)
- **결과공유회**
- **발 표:** 전별 전스비주얼랩 대표(완주)

### 관광산업에 대한 지역활동가들의 현안 및 대응

### 목차

1. 관광산업화에 대한 지역 활동가들의 대처 방안
2. 지역문화예술활동가들의 지역 축제 참여 방안
3. 지역문화예술활동가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장치

### 주제 선정 이유

- 2022 지방선거 이후 문화예술정책의 변화 예고
- 문화예술 기반 산업 활성화 요구

### 1. 관광산업화에 대한 지역 활동가들의 대처방안

- 지역 특화 콘텐츠 필요  
전통, 역사, 문화, 인물, 이야기, 자연환경 등
- 노래, 퍼포먼스 개발
- 모바일 콘텐츠 지양
- 온라인 홍보 활성화
- 로봇 AI 등 신기술을 결합한 콘텐츠 개발
- 문화예술활동과 산업화(상업화)를 따로 분리하지 말자

### 1. 관광산업화에 대한 지역 활동가들의 대처방안

- 관광산업 관련 포럼, 세미나, 해커톤 개최  
트렌드 파악, 소비자 연구, 지역 현안 공동 대응, 지역 콘텐츠 공동연구
-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지역 경제파급 효과 조사

### 2. 지역문화예술활동가들의 지역 축제 참여 방안

- 재전위원회 운영 개선  
재전위원 선정기준, 재전위원 전문성, 지역 콘텐츠 프로그램 구성비율
- 축제 기획 공모전  
지역활동가, 주민공동체, 청년활동가, 서포터즈
- (신진 청년)지역 활동가들의 자발적인 모임 활성화 - 정책 제안
- 축제 모니터링단 적극 참여

### 3. 지역문화예술활동가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장치

정읍, 이강삼 위원

- 지역문화예술 활동가의 목록화(리스트업)  
생활문화예술 + 전문문화예술 산재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분야를 구분하여 목록화가 시급
- 지역문화예술활동가 소통의 장 마련
- 비전 제시와 인프라 확충에 지원, 문화포털 구축사업
- 차후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 등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대두
- 정읍은 문화재단 혹은 문화관광재단의 부재  
현재 시청 문화예술과TF 팀이 구성되어 정읍문화관광재단 발족 준비중

### 3. 지역문화예술활동가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장치

부안, 이민호 위원

- 지역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 활동 예산 지원 확대
- 타지역 문화 예술관람 기회 제공
- 지역축제, 문화프로그램의 재전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에 청년활동가, 지역활동가 참여비율 기본할당
- 행정의 민간단체 지원금에 대한 심사 기준 변경: 반복 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 신규사업 협력사업, 신규단체의 대한 가중치

### 3. 지역문화예술활동가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장치

익산, 권순표 위원

- 정부 지원사업제도 활용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행정안전부

### 3. 지역문화예술활동가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장치

완주, 전별 위원

- 문화예술기반 창업프로그램 강화  
창업프로그램 담당자들의 문화예술, 창작자들에게 대한 감수성 의무 교육이수기간 확대  
교육 훈련비 지급 또는 현실화  
고도화된 창업프로그램 설계 - 생산 노하우, 서비스 노하우 창업프로그램 이수 인증 시험 - 인정 점수 취득자 행정 사업자금 지급

저희 1 모듬은 ‘관광산업에 대한 지역활동가들의 현안 및 대응’ 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세 가지 세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관광산업에 대한 지역활동가들의 대응 방안, 두 번째는 문화예술 활동가들의 지역축제 참여 방안, 마지막 세 번째는 지역 문화예술 활동가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로 2022년 지방선거 이후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문화예술 기반 산업 활성화 대한 지역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관광산업에 대한 지역활동가들의 대응 방안’ 중 많은 지역에서 공통으로 공감한 내용은 ‘지역 특화 콘텐츠가 필요하다’ 라는 점이었습니. 지역의 전통, 역사, 문화, 인물, 이야기, 자연환경 등 로컬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이 봤을 때 오랫동안 지역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지역에 가면 OO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AI 등 ‘신기술을 결합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역의 독창성과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지역을 알리는 좋은 방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픈 지적도 있었는데, 모방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유행하는 장르,형식의 콘텐츠를 만들 수는 있지만, 지역에 대한 고민 없이 유행하는 장르,형식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스스로 반성해야 할 지점으로 생각됩니다. 또, ‘온라인 홍보 활성화의 필요성’ 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었는데, 아직도 지역에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화, 상업화를 따로 분리하지 말자,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고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안의 활동가, 완주 예술가분도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읍의 이강삼 위원께서 제안해주셨는데, ‘관광산업 관련 포럼이나 세미나, 혹은 장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해커톤과 같은 자리의 필요성’ 에 대한 부분입니다. 문화예술 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소비자를 연구하고, 지역 콘텐츠에 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등 이 모든 작업을 종합해서 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작은 형태의 협업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교류가 필요하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부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문화예술 영역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 조사’ 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라북도와 각 기초자치체도 그렇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문화예술 정책의 변화가 예고되는데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기준이 경제적 가치로 옮겨가면서 수익성이 문화예술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문화예술 향유부터 창작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문화예술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경제적으로 환산됐을 때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체적정신적 측면에서 문화예술이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고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면 몸이 덜 아프고 자연스럽게 병원에 가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연계되어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단순 수익 창출 여부가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앞두고 전북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내 생산 유발 효과 796억 원, 전북 내 생산 효과 531억 원, 고용 창출 효과 1,054명, 부가가치 293억, 전북 내 부가가치 203억 등 경제 유발 효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효과를 알리는 자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지역에서도 축제나 행사가 진행될 때 거기에 따르는 경제효과가 큼니다. 행사의 기획자, 공연자, 음향조명 등 기술 스태프 등 지역 산업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를 분석하는 대신 문화예술을 여가생활 정도로 보고 문화예술 활동 가치 자체를 낮게 평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하는 활동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때 문화예술, 관광에 대한 산업화 논의 역시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 활동가들의 지역축제 참여 방안인데요, 이 부분에 관한 논의가 치열하기도 하고 민감한 부분도 있었고 상처받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공통으로 나왔던 부분은 ‘축제 제전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라는 점이었습니다. 제전위원회 위원 구성 기준과 위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축제 프로그램 구성에서도 지역 콘텐츠, 프로그램에 대한 인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 지역축제의 제전위원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고,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 알기가 어렵고요, 프로그램 구성 측면에서도 외부 관객 모객을 위해 외부 콘텐츠를 가지고 오면서 오히려 지역콘텐츠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역콘텐츠를 살리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축제나 행사 운영 시 지역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축제 기획 공모전’ 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역활동가, 주민공동체, 청년활동가, 예술인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축제 기획과정부터 진행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전 같은 형태로 사업을 운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이었는데요,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다양한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지역민이 직접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지역활동가들이 수동적인 자세를 탈피하고 능동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지역활동가들의 자발적인, 자조적인 모임을 활성화하고 이 모임이 행정에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연결해서는 축제 모니터링단 구성 및 참여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축제 기획 및 운영과정에 배제되었다고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모니터링단이 되어 지역축제에 참여해 문제점을 찾아 분석해 보고, 개선할 점들을 공론화시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지역축제가 발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계속 환류시키고 개선해 나가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완주는 ‘와일드푸드축제’ 가 가장 큰 축제인데, 주민위원회를 주축으로 축제를 진행합니다. 주민위원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있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주민들의 참여가 많이 보장되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실제 프로그램의 기획이나 구성 부분에서는 아직도 대행사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의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한 발짝 한 발짝씩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이들이 축제에 참여해 세부 사항들을 살펴 보면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모니터링단의 모든 제안이 다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적용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었는데요,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지역축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 활동가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런 자주적인 활동이나 움직임이 활발해져야 한다' 는 의견이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지역 문화예술 활동가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장치' 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마다 상황이 달라 내용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강삼 위원님께서 정읍 상황에 관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현재 정읍에는 생활문화예술인과 전문문화예술인이 섞여 있고, 누가 어디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분야를 구분해 이분들의 활동을 알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 활동가들이 만나서 소통하고,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나 공간 자체가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비전 설정과 인프라 확충, 이를 차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중간조직이나 문화재단이 없는 상황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읍은 현재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TF팀이 구성되어 재단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토론 때 이강삼 위원님이 보충해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부안 사례인데요, 이민호 위원님이 신진활동가, 기관담당자, 기획자 등과 인터뷰한 내용을 전해주셨습니다. 신진활동가와 지역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와 예산 지원, 다른 지역 문화예술가와 소통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완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아서 아쉬움이 있었고요, 신진이나 청년활동가들은 지역문화 현장에서 생존 자체가 어려운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어서 이들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나 문화행사의 제전위원회 혹은 운영위원회에 청년활동가와 지역활동가의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할당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행정의 민간단체 지원금 심사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기존에 선정된 단체들이 계속 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의 신진활동가나 청년활동가들의 경우 기존 단체들과 경쟁했을 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원 기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또 다른 제안으로는 신규 사업이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신규 단체에 대한 가산점을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익산은 지역활동가로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양희원 님께서 내용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정부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예로 중앙정부 부처에서 운영하는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언급하셨는데요,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은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에게 정부의 자원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연령 기준도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활용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 은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컨소시엄 등을 통해 같이 연계해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완주군은 현재 사업이 끝났는데, 이 사업 운영과정에서 다른 지역에서 청년들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었고요, 사업 종료 후에도 일부 청년이 남아 고산 시장에 공간을 꾸려 유의미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에서 자생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도 청년들이 계속 머물 수 있도록 그들이 일하고 원하는 활동을 계속할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계속 활동하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 창업을 했는데 직접 활동하며 느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창업할 때 창업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창업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이걸로 수익을 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지?' 라는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

야에서 활동하시던 분이 창업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흔히 예술가들의 사고구조가 다르다고 합니다. 취업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문화예술, 예술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충분히 기다려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업 프로그램에서 담당자와 싸우거나, 담당자 의견을 반영하면서 사업의 본질이 흐트러지는 경우도 종종 목격했습니다. 제가 창업하면서 느낀 점은 3년은 해야지 뭔가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공공에서 운영하는 창업 교육 프로그램은 몇십 시간밖에 안 되는데 교육을 이수하면 거액의 사업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바로 창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교육이 창업에 충분할까요? 저는 이 시간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2010년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창업자들을 굉장히 많이 양성했습니다. 지원 프로그램 외에도 저리 대출 등 창업 지원이 많았는데, 까다롭지 않은 조건에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다 보니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창업으로 인해 실패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예술로 창업하려는 사람들도 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무 교육 기간이 좀 더 늘어나야 하고, 사람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비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참여해 보면 창업 프로그램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잘 쓰는 방법, 프레젠테이션 예쁘게 만드는 방법 정도입니다. 기업가 정신 등 이런저런 교육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노하우들은 배우기 어렵습니다.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거나 그런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배울 수 있도록 네트워크 연결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창업 교육 강사진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인데, 강사진 대부분이 이미 현장에서 떠나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의 흐름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실제 기업의 활동을 얼마나 현실감 있게 전달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창업의 경우 문화예술의 특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창업자금 지원 부분에서도 프로그램 인증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창업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수료 이후에 바로 사업 자금을 주고, 창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식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일정 부분 갖춘 다음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문화예술 활동가들의 건강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주에서 문화예술 기획자들이 같이 만나는 테이블이 있는데, 저도 그렇고 다른 활동가들도 건강상의 문제를 겪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연말이 되면 대다수 활동가가 보조금 결과 보고 및 정산업무로 정신이 없는데요, 저희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려면 건강이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항상 연말에 일이 몰리면서 무리를 해 건강이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활동가들이 건강을 지키면서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사업 설계, 운영방식도 제도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저희 모듬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다른 주제들이 하나하나만 두고도 몇 날 며칠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역별로 나왔던 현안을 중심으로 발표했고요, 제가 미처 담지 못한 얘기는 토론을 통해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 ● 토론

### - 익산 양희원 활동가

저는 서울에 살다가 익산에 내려온 지 1년 정도 됐는데요, 결혼하면서 익산에 왔는데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뭘 할 수 있지 등등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고민 속에서 찾다 보니 현재 익산에는 협동조합과 같은 문화예술 네트워크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익산은 서울에서든 어디서든 중간 지역이고 KTX가 잘 되어 있어서 오기 편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 그냥 거쳐 가는 곳 정도로만 인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환경적 여건에 비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느낀 부분은 시민단체들이 익산시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 수시로 여러 단체와 시민들이 토론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봤었는데, 다만 그게 실제 사업까지 이어지는 부분은 잘 보이지 않아 아쉽더라고요.

저는 익산시 관광산업이 발전하려면 체류형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간 머무르는 것도 좋지만, 잠깐 와서 일과 휴식을 겸하는 '워크케이션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은 '활동가'라고 하면 청년에 초점을 맞춰 생각했는데, 장수 이서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에 청년이 들어가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 관광산업이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중장년층, 노년의 이야기 혹은 그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도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항상 새롭고 신선한 무언가를 찾으려 할 때 가장 먼저 청년층을 떠올리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고학력 지수가 5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현재 4~50대가 많은 교육을 받은 분들이고, 그분들이 생각의 틀을 깨기만 한다면 충분히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령대와 함께하는 것, 청년 외의 다른 사람들도 주체가 되는 문화예술이나 관광산업 또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 - 정읍 이강삼 위원

전별 위원님의 발표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중 빠진 것만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정읍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생각하게 된 문제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상황은 잘 모르지만, 보통 지역마다 대표 축제가 1~2가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읍도 '구절초 축제', '정읍사 문화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앞두고 입찰하면 다른 지역의 외부 업체들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업체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업체를 찾는다고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총괄기획자는 지역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지역 사람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도화해서 처음부터 입찰 자격에 총괄기획자로 지역의 축제기획자, 문화예술기획자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고 싶었습니다.

### - 부안 이민호 위원

먼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와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정책과도 관련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청년들은 뭔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꿈을 꾸면서 지역을 찾는 데 한계를 마주하게 되면 굳이 그 지역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한계라는 게 자신이 부족해서라고 느낀다면 공부하면서 계속하겠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예를 들자면 정치적 영향과 같은 부분에서 한계를 느끼게 된다면, '이곳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기회가 많은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의 민간단체 지원금에 대한 심사 기준에 대해서도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러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서 의견을 취합해봤습니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보면 여러 사업에 작년, 재작년에 선정됐던 단체들이 계속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규 단체 한두 군데가 더 지원받는 일도 있습니다. 기존 단체가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신규로 사업을 해보고 싶은 단체나 청년활동가들이 자신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떨어졌을 때, 이게 왜 떨어졌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고, 어떤 부분에서 초점을 못 맞추고 있는지 누군가가 멘토링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류를 접수한 기관에서라도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그다음 해에 개선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을 텐데, 떨어졌다는 결과만 말합니다. 결과를 보면 기존에 지원받던 단체들이 계속 선정되고 있고, 청년들에게는 이런 상황 자체가 한계로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단체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심사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문화예술정책은 최소 3년은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는 대부분 실적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행정에서 지원금을 내려줄 때도 실적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단체들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을 때, 단기적으로 바로 실적을 낼 수 없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되면 그 가능성을 보고 지원해 주는 사례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예로 제가 이전에 사업계획을 행정에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안에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내용으로서 '과연 이게 될까?' 하는 고민과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원이 저한테 '관찮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시죠. 해보고 안 되면 변화를 주든지 바꿔보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해준 적이 있어요. 그 한마디로 '그래 한번 해보자. 믿어주니까 한번 해보자.' 힘을 얻었던 적이 있는데요,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서는 덜할 수도 있겠지만 인구가 적은 지역들은 행정직원이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마다 바뀝니다. 순환보직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좋을 수도 있지만, 담당 분야의 이해를 높일 수 있게 조금 더 오래 근무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사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지자체에서는 축제나 전문적인 문화행사를 진행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직원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획사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획사를 선정할 때 지역 프로그램, 지역 문화예술인 참여 비율을 몇 %까지 맞출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축제,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주민들에게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발표회, 보고회 등을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야 기획사에서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실적 중심의 행사가 아니라, 지역사람들이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는 행사와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부안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했고, 그 과정에서 공통으로 느낀 부분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하는 마음인 만큼 좋은 쪽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전주 김동영 위원

위원님과 활동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는 정읍의 이강삼 위원님이 문화정보 관련 해서 정읍의 문화포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라북도 문화포털' 부터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픈 플랫폼 형태로 지역의 문화예술인이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만들고 거기에서 지역의 문화예술가와 문화 예술 활동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제주도에서 운영되는 문화포털이 있거든요, 포털을 구축할 때 예산 등에서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의 역할이 지역문화 진흥에 있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문화포털 사업을 한번 고려해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별 위원님께서 문화예술 기반 창업 지원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업이 문화예술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내에서는 문화예술의 특성을 고려하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사실 지역문화진흥법에도 '지역문화활성화' 가 있고, 지역 문화 창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문화예술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중앙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러한 기능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지만, 지역에는 이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요, 이런 별도의 기구가 없어서 문화예술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지역에 있는 기초문화재단들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하면 지역 전체에 관련 기구가 만들어지면 좋는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권역별로 하나씩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문화예술 중간조직인 문화재단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보고요,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지자체별 문화예술기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인지, 직접적인 예산 지원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가들의 비즈니스 모델, 문화예술의 상품성 발굴 과정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재단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전주 김수현 활동가

저는 청년창업가 중 한 사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창업 자체가 사업화해서 수익을 만들자는 것인데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한다는 건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고, 정말 너무 힘든 일입니다. 경쟁력을 갖추고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식과 고도화된 비즈니스 모델 마련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한 기본 교육을 해주는 건 좋은 취지이지만, 그런 것보다는 창업 전에 실무적인 체험이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원금 지급에도 교육 수수료 여부가 아니라 단계별로 촘촘하게 기획하고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통해 단계별 성장을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를 구상해보고 이런저런 테스트를 시행하는 과정들이 있어야만 사업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사업이 성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10번은 시도해야 마지막 시도에 이르러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청년들이 창업한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보고 듣는데요, 현재 시스템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예술 기반 창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멘토링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전주 김동영 위원

문화예술 창업하시는 분들이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문화예술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공재적인 가치를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사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데, '나는 공부(예술)도 같이할 수 있으니깐 됐다' 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사회적 경제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로 가려면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의 창출뿐만 아니라 산업적, 경제적 가치가 함께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충돌할 때 문화예술가는 자기가 어떻게든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공공적 가치를 만들었다고, 그걸로 자신의 역할은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냥 거기에서 끝나게 됩니다. 더 이상 더 나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없고, 공공적 가치를 재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문화예술가들이 산업적 측면의 접근을 할 때는 완전히 다른 경제적 분야와 사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공재적 가치에 대한 문제를 마주하고, 그런 시도가 끊어질 수 있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창업 전 단계의 실험에 지원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투자자한테 실험 성공 모델을 제안하고 실제로 성공하면 투자자들에게 투자 비용을 돌려주는 모델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가 대부분이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재단 쪽에서 문화예술가들이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장수 이서하 위원

장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관광 말씀하셨는데, 저도 장수가 고향은 아니지만 젊은 시절에 이곳에 와서 17년 동안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마을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연구했는데요, 문화예술 교육이나 문화예술 사업을 하면서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런 호응이 있을 때 다음 사업으로 이어지고 연계가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장수가 7개 읍면이 있는데, 저희는 사업을 꾸릴 때 7개 읍면의 특색을 알아보고,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적은 작은 마을이라 가능한 것이긴 한데, '문화가 있는 날' 이나 행사를 하게 되면 외부 공연자들이나 연주자들이 10~20명 정도 오시거나, 단체 전시를 해서 예술인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일도 있어요, 그런 행사를 할 때 고랭지 배추가 유명한 마을이라면, 그 배추를 콘셉트로 행사를 준비해요, 그러면 거기 왔던 예술인들이 배추를 10포기씩 사 가지고, 주문하고 가세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함께 묶어서 하다 보니까 마을 분들 호응이 너무 좋아요, 지역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도 되더라고요, 관광과 산업 관련해서 문화예술과 연결해서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좌담회 전문**

● **일시: 2022년 11월 1일 14시**

● **장소: 익산**

● **참석: 권순표, 이민호, 이강삼, 전별**

**이민호** 저희 주제가 우선은 ‘관광문화예술 산업화에 대한 지역의 대응’ 인데요, 각 지역에서 준비하신 사례를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표** 제가 활동가로부터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지역에 내려오신 지 한 1~2년 정도 밖에 안 되셨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아무것도 못 하다가 익산에서 처음으로 축제를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의 문화 정책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축제 등에 활동가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현재 시스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저는 이분의 내용이 저희 논의 주제에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기존의 문화행사와 다르게 디지털화를 한 부분을 굉장히 좋게 보셨더라고요, 서동축제에 디지털이 결합하면서 영상이 상영되고 드론 쇼가 진행되고 그랬는데 의외로 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점을 굉장히 좋게 적어주셨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그런 콘텐츠를 만나기가 힘든데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좋게 생각하신다고 했어요. 직접 가서 보셨는데 아간에 진행이 되면서 몰입도가 좋았다고 주로 좋은 내용을 써주셨어요. 우선은 좋은 부분에 대해서만 써주신 것 같은데, 개선해야 할 점 등에 대해서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글을 보면서 저도 다시 생각해 보니, 익산 축제가 정말 많이 디지털화됐더라고요, 축제를 돌아보면 일반 스크린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공중이나 미러사지 탑에 영상을 상영해서 몰입도를 높이고 있었어요. 무대나 평지는 뒤로 가면 갈수록 잘 안 보인다는 단점이 있는데, 공중에서 구현되니까 그런 제약 없이 볼 수 있다는 게 참여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술 콘텐츠가 있으니까 많이 찾아가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전에 잘 안 갔던 축제에도 가고 새로운 것을 보기 위해 움직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 익산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나 축제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판할 부분과는 별개로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했구요, 우선 익산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별**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 산업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도 완주에서 문화를 기반으로 창업했고 활동하고 했는데,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이 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나 토대 자체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려고 해도 자문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도 없구요, 문화예술이나 관광이 산업이 되려면 소비재로서 정말 고품질의 콘텐츠가 있어야 하는데 완주뿐만 아니라 전주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내고 볼 만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거로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의 상황을 봤을 때 자생적으로, 보조금이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고품질의 지역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단체나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 사례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래도 완주에서 유의미하게 활동하고 있는 곳이 소양면에 있는 ‘완주풍류학교’ 입니다. 완주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곳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완주군 전역에 전통예술 공연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전문공연단체로 다양한 공연을 기획해서 진행하는데 관광지에 인접해 있어서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완주에서 조사하고 싶은 부분은 공공예산 중 문화예술·관광 비율은 어떻게 되고, 이 예산을 관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민간에서의 활동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지역의 현안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이나 관광을 산업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선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완주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나 조건이 필요한지 등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강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지역활동가에 관한 점인데요, 정읍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전문 예술가와 생활문화예술가들이 산재해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예술가들이 소외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활동을 계속 이어가기 어렵고, 작품을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술가로서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문예술가들 스스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는 관에서 생활문화예술인과 전문예술가의 활동에 대한 대우가 크게 다르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목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술가 목록이나 생활예술가 목록 같은 실태조사가 있어야 하고,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실 있긴 있습니다. 예술인 등록 제도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저도 직접 해봤는데,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더라고요, 그냥 자신의 활동을 포스터 등으로 증빙하면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전문예술인인지 생활문화예술인인지 구분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조사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읍에 대표적으로 축제로 ‘정읍사 문화제, 구절초 축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축제를 진행하기 위한 ‘제전위원회’ 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제전위원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전위원회의 권한이 정말 크더라고요, 이걸 막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비슷한 위원들로 위원회가 구성되고요, 그 안에서 진행되는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축제의 레퍼토리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연예인만 바뀌더라고요.

정읍의 오래된 고려가요 중 <정읍사>라는 곡이 있는데, 항상 나간 남편을 기다다가 망부석이 된 여인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정읍에는 이 여인을 기리는 문화가 있고요, 또 정읍의 ‘정’ 자가 우물 정(井)자를 쓰는데 실제로 정읍에 굉장히 오래된 우물이 있어요. ‘정읍사 문화제’ 를 보면 그 오래된 우물에서 <정읍사>에 나오는 여인을 추모하는 제를 지내고요, 축제장에서도 제를 지내고 저녁에 공연도 하고 불꽃놀이를 하는데, 저는 연예인 공연과 불꽃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앞부분의 제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법에 맞게, 진정성 있게 제를 드리고 그것 자체가 문화제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문화예술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지역에 있는 청년 예술가들과 계속 고민하고 활동으로 연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에 문화재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정읍에 곧 문화재단이 생긴다고 해요. TF팀도 생겼고, 타당성 연구조사도 하고 있는데요. 올해나 내년에 설립한다고 준비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외부 연구자의 용역 보고서가 아닌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먼저 만들어진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 자리를 오픈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대부분 정읍 사람들이나 예술가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민호** 부안 활동가로는 이주환님을 모셨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주환** 저는 이민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제가 현재 부안군문화재단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제가 하는 말이 대표성을 띠게 될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부안에 온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부안에 이주환 문화를 좋아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산업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부안에 와서 두 가지 축제를 경험했는데, 하나가 ‘부안노을축제’, 그다음에 ‘문화재 야행’ 이었습니다. 제가 지역축제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 부안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문화원형을 살린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부안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원형을 가지고 축제를 기획한다면, 관광객에게도 비슷한 축제가 아닌 색다른, 독특한 축제로 기억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부안의 문화원형을 보면 띠벳놀이도 있고 계양할미라는 수성당도 있거든요. 사실 ‘부안마실축제’ 에 띠벳놀이가 일부 들어가 있는데, 띠벳놀이는 위도에서 하는 원형이니까 그 부분을 특성화한다면,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더 많은 분이 찾아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게 더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축제를 운영하는 이유도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정량적 평가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어서 유명연예인을 섭외하거나 기존의 유명한 콘텐츠를 가져올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인분들을 만나보면 가장 큰 불만이 그런 지점이더라고요. 우리가 지역에 있는데, 왜 지역문화예술인이 아닌 외부의 기획자나 연예인이 지역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하느냐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행정과 지역문화예술인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민호** 앞에서 전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은 공장이 아니거든요. 지역마다 특색있게 추진해나가는 방향이 달라야 하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드론 쇼도 물론 좋아요. 서울이나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여기 지역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좋죠. 그런데 최근에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축제마다 드론 쇼를 해요. 드론 쇼가 요즘 주목받다 보니까 대부분의 행사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부안의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드론 쇼를 하는 건지, 그냥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드론 쇼를 부르는 건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안에서 부안을 알리기 위해 드론 쇼를 한다고 하면 정말 좋은데, 대부분은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서 드론 쇼나 연예인으로 축제를 채운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사람들이 지역축제를 왔을 때 최소한 그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도 해보고, 이 지역이 이렇구나 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축제를 보면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연예인 보고 그냥 가요. 그럴 때 이게 누

구를 위한 행사일까 고민이 됩니다.

관광산업이라는 게 그 지역을 알리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역을 알리기에 문화예술만 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문화 자체에 그 지역의 전통, 예술 모든 게 포함이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뭔가 해결 방안으로 제안 사항을 결과물로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안에서 좋은 제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영될 지 안 될지는 기능할 수 없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꾸준히 이런 제안을 계속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전 별** 저희가 나는 이야기에서 공통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의 축제나 행사가 관광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성이 담보된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유명 콘텐츠나 연예인의 공연이 축제의 중심이 될 때 지역축제가 가지는 지역성이 드러나지 않고,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의 지역에 관한 관심도 끌어내기 힘들다는 공감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축제의 방향과 현재 운영 내용의 괴리가 큰 거죠.

축제 부스의 셀러나 체험프로그램들과 연계해서 외부 콘텐츠나 공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개선이 되려면 관광산업을 진행하는 행정이나 주체와 지역의 활동가들이 함께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을 짜야 하는데, 그런 자리가 없어요. 그런 자리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획 단계부터 축제에 참여하는 셀러, 공동체, 문화예술가 등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지자체와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자리,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을 현장 활동가 개인이 요청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논의를 지속할 수 있는 제도나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권순표** 축제나 행사 기획과정에서 지역문화예술인이 들어갈 수 있는 상설기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를 만들어서, 지역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다면 좋을 거예요. 예를 들면, ‘보령머드축제’ 처럼. 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그런 인상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축제나 행사를 만드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고품질리티의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예산의 집중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서 익산만 봐도 축제 여러 개가 비슷한 시기에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갈 데가 많아진다는 건 장점일 수 있지만, 대신 적은 예산으로 행사가 운영되면서 차별성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역량과 예산을 집중해서 질 높은 문화 행사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재단이나 축제를 진행하는 주무 부처에서 지역문화콘텐츠를 안 만들고 싶어서 안 만드는 건 아닐 거로 생각해요. 나름대로 시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역에 그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인력이나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향유 측면에서 저희가 드론 쇼 같은 유명 콘텐츠를 보기 위해 서울이나 수도권에 가야만 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유행하는 콘텐츠를 지역에서 하는 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역민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니까요. 대신 이런 콘텐츠를 지역에서 진행할 때 지역의 인력이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드론 쇼 업체와 계약을 한다면, 지역업체와 협업을 하는 것을 선정 기준으로 넣어서 실제로 쇼의 기획과 운영까지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지역 인력이나 업체의 역량이 늘어나고, 지역업체가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민호** 권순표 대표님 말씀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울이나 수도권 행사에서 보던 드론 쇼를 여기에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드론 쇼가 들어가야 하는데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런 걸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온다는 부분도 무시할 순 없겠지만, 주와 객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 지역을 기반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준비하는데, 지역에 대한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외부 콘텐츠 중심으로 축제를 진행하는 게 맞는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도화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축제나 큰 행사의 경우 ‘제전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이 제전위원회 구성이 보통은 지역의 원로분들 중심인데, 지역활동가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비율을 의무화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요.

**이주한** 지역의 축제는 대부분 관 중심이고 공무원들이 진행하죠. 이 구조에서 지역활동가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활동가들이 힘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현재 지역활동가들이 힘을 키우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 생각했을 때, 각개전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부안만 보더라도 문화원도 있고, 예총도 있고, 생활문화예술동호회도 있고, 재단도 있는데 다들 자신의 사업을 하기 바쁜 게 사실이에요. 군은 군대로, 기관은 기관대로, 문화예술인은 문화예술인대로 다 각자 움직이고 있는 거죠. 사실 지역의 문화 욕구는 현장에 계신 활동가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라든 협의체를 구성해서 부안 군민의 욕구를 바탕으로 한 의견들을 관에 제안하고 설득하는 움직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의견에는 현장을 바탕으로 한 통찰력이 있으므로 지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과정들이 쌓이면 관에서도 이분들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민호** 이주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분명히 맞는 말이고 저희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역에서 목소리 낼 힘을 키운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현장의 활동가들이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지원사업을 보면 기존에 선정됐던 단체들이 계속 지원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신진활동가나 청년활동가, 소규모의 활동 단체들이 성장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연속 지원 기간을 2년이나 3년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일정 비율은 신규 단체로 선정한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권순표** 저희가 10명의 지역활동가를 만나면 10명이 요구하는 게 다 달라요. 이러한 요구를 전달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활동가들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단체, 네트워크, 활동들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전 별** 이런 논의들은 문화예술정책 기초의 변화를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책 기초가 한 번에 다 바뀌지는 않겠지만 선거 이후에 산업화가 계속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산업화가 한편으로는 필요한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즐기는 문화도 필요하지만, 이런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문화자원을 산업화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처음에 한두 번은 보조금이나 지원사업으로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생력을 갖기 위해 전라북도 안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무엇을 산업화해야 하는지, 산업화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기반에 대한 조사나 논의가 없다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무엇이 미비한지,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나 지원이 필요한지, 이런 것부터 얘기해야 한다는 거죠. 저도 지역 상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산업박람회, 공장 다 쫓아다니고, 디자인 연구하고, 시장 조사하는 걸 수년간 계속하고 있어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품을 개발한 거지, 단순히 보조금을 받아서 혹은 사업을 따와서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교육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향유 차원에서의 문화예술과 산업적 관점에서의 문화예술은 기본 세팅 자체가 달라요. 경영, 회계, 유통,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작품 활동, 현장 활동을 하던 문화예술가들이 이를 다 생각하면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업적 역량을 키워야 하는 건데 그 과정을 세밀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는가 했을 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창업 지원 기관은 있어요.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요. 하지만 그 내용이 문화예술의 특성, 문화예술인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 저희에게 필요한 게 무작정 예산을 주고 콘텐츠를 만들라고 하는 지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라북도문화관 광재단에서도 상설공연을 만들지만 이게 대중적으로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산이나 인프라 면에서 기초자치체보다 나은 광역 재단에서도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선, 지역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문화예술의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뭔지를 더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살펴보고 산업화를 위한 기반 구축, 지원 시스템 마련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민호** 제가 오늘 논의하신 것 중에서 좀 주요하게 반복됐던 키워드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역성이 담보된 문화예술 콘텐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문화예술인이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축제 관련해서 축제를 기획하고 축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권한 안에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문화 활동가들이 참여할 방법에 대한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향유의 문화예술에서 산업의 문화예술로 지금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온 키워드였습니다. 지역별로 사례 찾아보고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공유하고, 그 안에서 공감되는 지점들에 대한 대안들을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강삼** 일단은 자료 조사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의 현황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별로 전문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가 구축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재단이 있는 곳들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단이 없는 곳들은 그런 데이터를 찾기가 어려워워서요. 그래서 문화버리협의회와 연계해 전라북도 문화예술인 명부 같은 자료 조사를 해보면 어떨까 제안해보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인구 감소와 지역문화

전주 김동영  
 남원 함경록  
 장수 이서하

**이민호** 문화관광을 이야기할 때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상당수가 문화 예술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건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활동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가능하다면 저희 안에서 지역 축제나 행사에 지역활동가들의 참여 비율을 확인해 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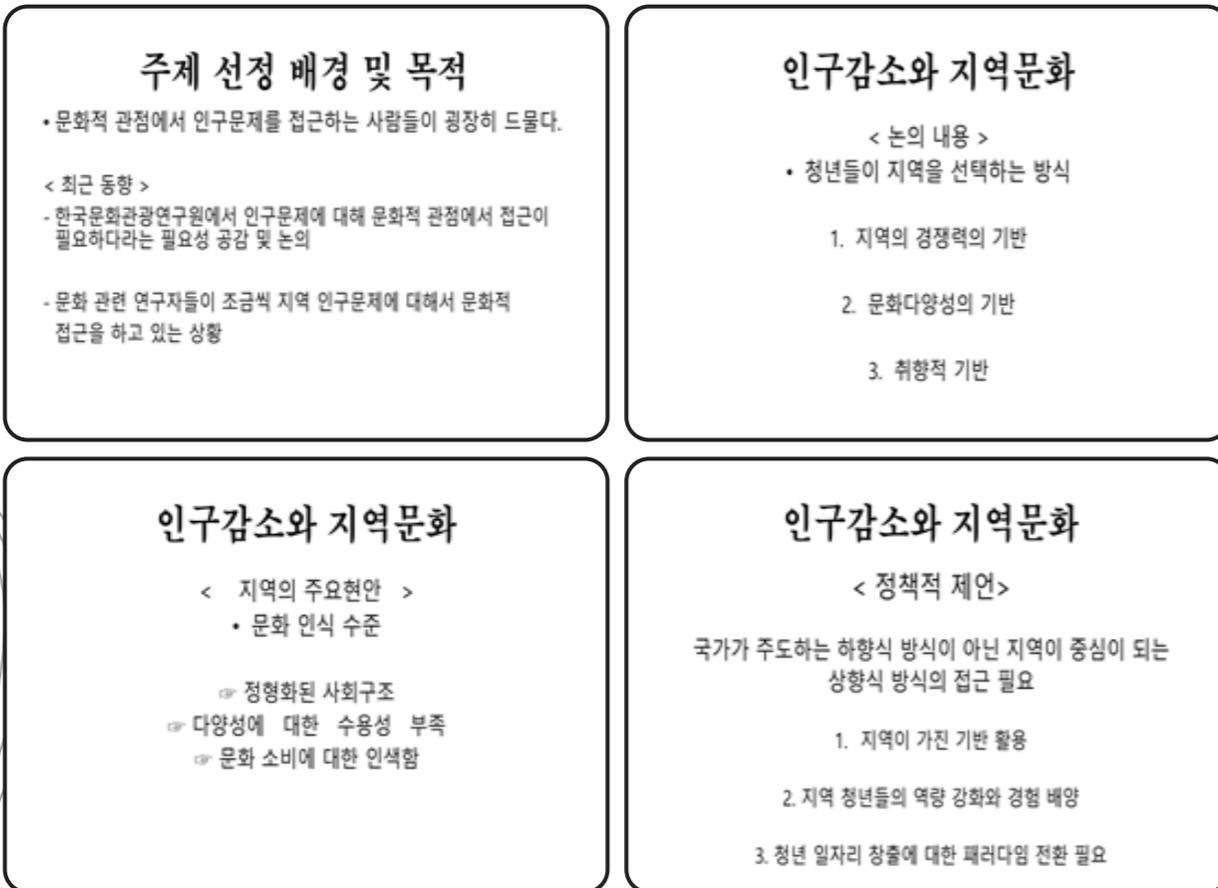
현재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역활동가들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까에 대한 제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자생력을 키우며 계속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면, 상당 부분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이런 제안을 모아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했을 때 재단이나 행정 부서에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 별** 축제에 지역성을 넣기 위해 논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과 관을 포함해 유관기관까지 다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운영한다면 좀 더 발전적인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자리가 단발성으로 운영되면 안 되고,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제안-개선-평가 과정이 팔로잉이 되어 의미가 있거든요. 지방선거 이후 지역에서 “문화예술 분야 오랜 시간 투자했는데 왜 성과가 없는가? 이제는 스스로 자생해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직도 현장의 현실이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겉보기에 좋은 면만 드러나고 현장의 실태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이민호** 그럼 문화예술 산업화 관련해서 지역의 활동가들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 장치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 논의를 정리해봐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분의 의견을 다 들을 수 없고, 재단이나 행정에서 얼마만큼 수렴할 수 있을 지도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역별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정리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내용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 모듬 2\_인구감소와 지역문화

- **참가위원:** 김동영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전주), 이서하 장수미술관 관장(장수), 함경록 남원문화기획자(남원)
- **지역활동가:** 김수현 향유갤러리 대표(전주), 김도현 장수미술관 학예팀장(장수), 서진희 청년협동조합 '놀자' 대표(남원)
- **결과공유회**
- **발 표:** 김수현 향유갤러리 대표(전주)



인구정책이 대부분 도시계획 또는 사회통계를 다루고 있지만 문화적 관점에서 인구 문제에 접근하는 연구자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도 인구 문제에 대해 문화적 관점에서의 접근 필요성에 공감하며 그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문화 관련된 연구자들이 조금씩 지역 인구 문제에 대해서 문화적 접근을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동향을 바탕으로 저희 또한 실제 지역에서 태어나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바라보는 지역문제,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지역활동가를 초청하여 좌담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화산업은 창조적인 산업이며, 창조적 경제의 토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는 문화산업을 아예 창조적 산업 (creative industry)라고 부르고 있고, 문화가 그 자체로서 경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오늘날의 경제구조를 들여다보면 문화는 산업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적 관점은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인구 감소에 대한 큰 축을 차지하고 있기에 인구감소와 지역문화에 대한 밀접한 관계를 연결해 이 문제를 문화적 관점으로 해결해 나아가고자 하는 모듬 2의 주제선정 목적이 있었습니다.

인구감소와 지역문화를 논할 때 청년들을 빼놓고는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꾸만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현상에 대해 청년들이 지역을 선택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해 봤습니다. 오늘날의 청년들은 한 자리에 앉아서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매달리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바꾸어 가는 창조적인 행위를 중요시하는 세대입니다. 마치 노마드적, 현대 유목민들처럼요. 이런 현대 유목민들 즉 청년들은 지역을 선택할 때 그 지역이 가진 경쟁력, 문화다양성, 취향적 인프라로 줄여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려운 내용은 아닌 듯 싶습니다. 내가 살 곳, 내가 머물 곳, 내가 경제적·문화적 향유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일까 생각해 봤을 때 그 지역이 가진 경쟁력과 어떤 문화적 요소들을 가지는지 그리고 내가 거기에 스며들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지인인 저는 전주가 지역이 가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주를 선택할 때 전주라는 지역은 문화예술의 생산 창작으로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수도권 미술 시장만 보더라도 창작자 60% 이상이 지방 사람들입니다.

전주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예술인 수가 많고, 이들은 결국엔 수도권 미술 시장으로 진출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만 잘 선점한다면 지방 예술인들의 에이전시 역할로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와 같이 청년들이 지역을 선택하는 방식 중에 이러한 요인 또한 지역이 가진 경쟁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일반화시켜서 모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을 선택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주는 문화예술 도시로서 예술인을 발굴하는데 자원적 인프라와 인적 자원 또한 형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예술 분야들이 다양하게 공존하는 문화다양성까지 따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지역이 가진 경쟁력과 문화다양성만 존재한다면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겠냐 이것입니다. 선택에는 지역의 경쟁력, 문화다양성 뿐만 아니라 취향적 요소도 따른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문화다양성과 경쟁력이 있다고 한들 내가 이 도시에 무엇 하나라도 누릴 수 없는 취향적 요소가 따르지 않는다면 또다시 지역을 이동하는 노마드적인 삶을 택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청년들이 지역을 선택하는 요인에 있어서 지역이 가진 경쟁력도 있어야 하고, 그 경쟁력이 문화다양성을 만들고 문화다양성이 청년들이 선택하고 머물 수 있는 취향적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말로는 쉽게 정리되지만, 현실은 각 지역이 청년들의 선택 요인에 들어가기 위해선 지역의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시도가 필요하며 지역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형성되어 있느냐는 중요한 맹점이 나왔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이냐의 문제처럼 지역이 가진 경쟁력이 먼저냐 경쟁력을 만드는 지역이 먼저냐가 되는 알 수 없는 무한 루프 형태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딜레마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주요 현안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남원, 장수, 전주가 공통으로 가진 것은 정형화된 사회 구조입니다. 각 지역이 가진 정형화된 사회 구조 때문에 낯선 외지인들이나 그 지역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지 않고 어떤 무엇을 한다면 굶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바탕은 지역사회가 워낙 좁다 보니 조그맣게 튀는 행동을 하여도 지역 어른들 눈에는 질 나쁜 행동들로 보이기 쉽고 이 정형화된 사회 구조는 결국 외지에서 오는 젊은 청년들의 이탈 그리고 절대 머무르지 않으려는 지역 청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틀에 박힌 사회 구조는 계속해서 지역 청년들이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의 사례로만 따져 봤을 때 사회 구조의 역할과 기능을 잃었다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과 사회조직의 특징을 열거해야만 하는데 이를 할 수 없고 개인과 사회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이미 정형화된 사회 구조로 들어간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 부족입니다. 어떤 도시가 창의적인 도시인가라고 할 때 “게이지수” 라는 말을 씁니다. 저희 모둠의 중론은 ‘전북권은 게이지수는 0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양한 부분들을 수용해야만 창의성과 창조성이 나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은 매우 수동적이며, 지역사회 구조로써 다양성은 엄연히 존중되어야만 하는 가치인데 지역은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이 부족 아니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정형화된 사회 구조 속에는 당연히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청년들이 뭘 하고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문화나 놀이 방법이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지역이 이때 가져야 할 자세는 그것을 ‘마음껏 해 봐’ 라고 할 수 있게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데 지역이 가진 특색과 이미 고일 때로 고인 성질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를 지역은 수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나쁘게 말하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요, 오히려 지역에 문화적인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찾아오는 외지인, 청년들을 환대하며 반갑게 맞이하고 품어주는 것이 지역이 마땅히 가져가야 할 태도인데 그렇지 못한 지역은 계속해서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좌담회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 지역 미술관에서는 전시회가 다소 선정적일 수도 있다는 이유로 이미 계획된 전시를 일주일 만에 바꾸게 된 일이 있다고도 합니다. 미술관을 찾아주는 관람객 대부분이 어르신 또는 가족 단위로 찾아오기에 여성의 신체적 부위가 묘사된 작품들을 전시하기에는 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오며 따라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전시는 취소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미술관의 역할과 기능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미술관은 다양한 기획전과 여러 가지 시도들로 시민들에게 새로운 담론을 제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인데 관람객 중 어르신들이 많다는 이유로 단지 작품이 성적으로 내비칠 수 있다고 하여 기획전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에서 운영되는 저의 작은 공간인 향유갤러리는 매달 새롭게 시민분들에게 전시회를

개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민간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대안공간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불호(不好)로 갈릴 수도 있는 전시회가 누구에게는 호(好)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게 전시회이자 여러 가지 담론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또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다양한 전시회를 기획합니다. 때로는 난해하기도 한 전시회를 개최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누구에게나 보기 좋은 속된 말로 예쁜 전시회도 개최한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사진 잘 찍히고 그럴싸한 전시회만 개최하는 것이 아닌 관람객들이 여러 전시회를 보며 자기만의 생각과 고찰들을 해 볼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페 수익으로 운영되는 공간으로서 난해하고 기이한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매출로서도 타격이 오기에 저희 또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이 문화에 익숙해진 지금은 오히려 이로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전시는 어떤 전시회가 열릴지 기대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어쩌면 이런 행동들이 시민들의 문화다양성을 인정하고 인정받는 문화를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얼마나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지역이 가진 경쟁력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틀에 박힌 사회 구조, 다양성에 대한 낮은 수용성 등 이러한 요소들이 모여 지역에서는 문화 소비에 대해 인색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이 전시를 봐야 하나, 삼사천 원의 돈을 주고 이 행사에 참여해야만 하느냐는 거죠. 지금까지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서도 예쁜 전시, 사진 잘 찍히는 전시도 잘 봤는데 왜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도 않는 행사를 경험하고 전시회를 보면서까지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 지역 주민들은 이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새롭고 다양한 것을 접하고 경험해야 호불호의 취향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의견과 의사를 말할 수 있고 타인의 생각을 듣고 공유하는 것이 창의력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의성과 창의력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 세상에서 그 창의성과 창의력을 풀 수 없는 지역은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와 지역문화에 대해 정책을 제언하자면 국가가 주도하는 하향식이 아닌 지역이 중심이 되는 상향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대상 지원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지역적 차원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수행이 됐지만, 앞으로는 지역적 차원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고, 또 지방대학 지원 정책은 청년층 유출 방지 목적보다는 오히려 지방대학 본연의 목적인 교육과 연구의 질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해 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것을 붙잡는 것만이 당사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 여러 경험을 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다시 내가 공부하고 자라왔던 지역을 떠올렸을 때 다시 한번 우리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경험 배양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 및 지원사업이 참 많습니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원 정책들을 펴가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잘 설계되지 않으면 효과성이 없거나 오히려 서로 상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방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질 제고 패러다임 전환에 강조점을 두고 정책 조율을 신중하게 해야 함을 제언합니다.

## ● 토론

### - 전주 김동영 위원

주제가 어렵긴 했는데요, 인구감소 문제를 어떻게 문화적 접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짧게 정리하면 사실 인구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구 층이 청년이고, 또 그중에서도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측면을 얼마나 유입할 수 있느냐가 향후 인구정책에서 핵심적인 아젠다로 지금 부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중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가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코어집단이라고 보았고, 지역문화 기획자 또는 예술가가 지역에 유입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 논의해 보니 4개 정도로 추려졌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지역이 우리에게서 굉장히 익숙한 것을 문화예술가들이 밖에서 들어오으로써 낯설게 보고 거기에서 매력을 발굴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서진희 대표가 남원의 건축적 매력을 활용해서 그 공간을 새롭게 바꿔 가는 전략을 펼친 바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지역이나 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트렌드세터의 역할을 해요, 다양한 실험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역이 아직 그런 트렌드에 못 이르렀을 때 지역에서 실험적 시도를 하면서, 새로운 시도들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문화예술의 새로운 접근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세 번째는 김도현 장수미술관 학예팀장님이 얘기한 젠더에 관련된 전시는 그전에 통과가 됐는데 성(sex)에 관련된 전시를 하려고 하니가 지역에서 반대가 심해 무산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문제가 수용성의 문제하고 연결돼 있기는 하지만 지역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가치에 대한 다양한 것들이 충돌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연결해 이서하 관장님이 서울에서 활동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여전히 서울 쪽 네트워크와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면서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네트워크의 한계가 확장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번째는 문화로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적 가치가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김수현 대표의 향유갤러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역의 갤러리가 전시에서 끝난 것에서 나아가 지역 작가들의 새로운 작품들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것까지 이어가며 지역 작가들의 경제적 부가가치도 만들어가는 것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는 너무 당연한 사업이지만 지역에서 나오지는 못했던 무대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정책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차이에 대한 문화적 수용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이냐, 지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단이라면 어떤 차원에서든 간에 문화적 프로젝트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 왔을 때 호구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배타성이 높아지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차이에 대한 수용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다문화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문화적 전략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직접적인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한 다양한 지역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문화적 실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 개발 중심의 지역 발전전략들이 많은데 지역 문화의 고유성과 환경이 청년들의 취향적 지역 선택에는 방향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주목받고 있어서 지역

문화 지역 개발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 3~4시간 정도 좌담회를 하면서 나왔던 의견들을 짧게 정리를 한 거고요, 혹시 관련해서 질문이 있거나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 - 익산 권순표 위원

저는 잘 정리된 논문 하나를 듣는 것 같아 좋았는데, 요즘 지역소멸에 대해 얘기할 때 정책적으로 출산을 강조하고 청년들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역소멸 대응기금이라는 게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계획서를 제출해 잘 된 지역으로 차등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기금의 대부분은 창업 쪽에 쓰이고 있어요, 익산도 그렇고요, 그런데 기금 일부를 이용해 문화 관련 사업을 진행할 방안들이 나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 전주 김동영 위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기금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인구 팀에서 담당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인구팀이나 기획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해마다 예산을 받아와요, 전라북도에서 한 320억 정도의 예산을 받아왔는데, 대부분 시설 쪽으로 사용해요, 문화도 쓸 수 있는데, 문화관광재단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 정도는 꼭 했으면 좋겠다고 인구 팀에 제안해도 충분히 예산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문화예술위원회 예산이 아니더라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관련된 예산들을 전라북도하고 공동으로 320억 중에 한 50억? 20억이라도 좀 가져와서 문화적으로 쓸 방안을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 장수 이서하 위원

저는 장수문화예술협동조합 이서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장수문화예술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으면서 장수미술관 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참석하지 못해 학예사님이 발표했는데 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미술관, 박물관들은 갤러리와 다르게 매년 상반기, 하반기 데이터를 냅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에 참석하는 관람객 연령대와 관람객 수, 그리고 어느 시기에 많이 오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에 따라서 그다음 전시회를 기획하고, 데이터에 맞게끔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성(sex)에 전시는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전시했던 작품 중에 정하영 작가님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저희 장수 지역은 대부분 노인 어르신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마어마한 노동을 하십니다. 저희가 정하영 선생님과 여성의 노동 가치에 대한 전시회를 기획했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라북도도립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미술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통 1년 전에 그 박물관의 소장품이나 지역의 특색을 알아보고 기획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연락이 없다 일주일 전에 바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입장에서 오시는 분들이 지역 분들로 가족 단위의 분들로,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장수 같은 경우는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인구가 별로 없지만, 그분들한테 저희가 최대한의 만족을 드려야 하고요, 그런데, 여성의 성적인 부분에 관한 전시를 전라북도도립미술관에서 했는데 굉장히 파격적이었다는 말을 딱 일주일 전에

들은거죠. 저희가 매년 도립미술관과 전시했을 때 예년과 비슷하게 가졌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와 소통 없이 그런 작품 전시를 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도립미술관에서 다른 전시였는데 선정적인 걸로 바꾸셨다고 해서 지역 특성상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힘들 것 같다고 취소한 건데 내용이 조금 다르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은 제2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학예사나 관장들이나 전시 해설사들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나 TV 프로그램들도 연령 고지가 있잖아요? 미술은 여기 전공하신 분들 많이 계셔 아시겠지만, 특별히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반기로는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 많은 그림을 보여줬을 때, 그 아이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국립뮤지엄에서 아이들도 자신만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난 다음에 창의적인 것들을 보여줄 때 미적인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시에 대한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 갤러리처럼 화려하고 좀 더 창의적이고 이리저는 앓을 수도 있으나 좀 제약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를 더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 - 무주 이선영 위원

무주도 장수와 비슷하게 정말 작은 동네잖아요. 사골에는 마을축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있어서 마을마다 축제를 다 하는데, 그 마을축제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역에서 이걸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내려오면 그냥 돼지잡고, 술 먹고 동네 사람 모여서 노는 걸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화 관련 청년 단체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러면 그 청년 단체와 마을을 함께 엮어서 마을 축제를 같이 기획하고 운영하면, 음악하는 친구들이 들어가고 음악하는 축제로 계속적 발전할 거고, 어디는 전시, 어디는 사진 이런 식으로 특색 있는 마을축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을 축제를 농어촌 지원센터 같은 데서 지원을 하는데, 정책적으로 문화관광재단 통해서 마을과 함께하는, 문화사업들을 추진하게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게 맞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걸 한순간에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이나 마을에 들어가서 함께 소통하고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활동하면 그분들의 인식도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마을축제를 그렇게 진행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려요.

### - 전주 김동영 위원

저희도 회의할 때 얘기한 게, 일본에 가미야마라는 조그마한 동네가 하나 있는데, 그 동네 인구가 한 6천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동네예요. 그런데 이 동네가 지금 현재는 IT산업의 메카처럼 변했잖아요. 그게 다양한 차이에 대한 수용성이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제일 처음에 전 세계 예술가들에게 문화예술레지던스를, 집에서 스테이하는 방식으로 한 건데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고 또 다른 행동들을 하고, 마인드가 다른 사람들하고 살면서, 그걸 공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차이와 문화를 서로 받아들인 거죠. 차이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지역에서 그런 차이에 대한 인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적 프로젝트들이 청년들과 함께하는 마을축제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일 수도 있는데, 저는 스테이 방식의 예술레지던시가 굉장히 좋은 변화의 방식인 것 같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가미야마가 굉장히 중요하

게 생각하는 게 스테이 하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과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레지던시를 운영하는데,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고민들이 재단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단순히 예술가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이 예술가가 지역과 어떻게 소통하면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데려오는 것, 변화된 형태의 지원사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청년들이 지역에 왔는데 마을 어르신들하고 갈등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남원 사례가 있거든요.

### - 남원 함경록 위원

아까 말씀 듣는데, 그렇게 가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렸을 때 예전에는 안 들렸어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니까 설명하신 부분이 공감되는데,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지금의 20대들에게 그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한다고 한들 그게 될까?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그럼 이제 그걸 안내해주고 같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것 역시 정책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청년 창업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한 모든 것들이 숫자를 채우고 비교하는 일들이 많아요. 사업 때문에 들어왔는데 결국 종료되고 끝나면 나가는 경우들도 많아서 관계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비슷하게 좋은 사례를 찾아보자면 산내라고, 남원에서는 초기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몰렸어요. 문화판매 계시는 분들도 많이. 지역 어르신들이랑 갈등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해 오면서 시도했던 게 마을에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연극을 만드셨어요. 여기서 어르신들이 마을 축제처럼 학교 강당에서 연극을 보여드리고, 그런 횡수들이 늘어나면서 연극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고 같이 공연단이 만들어지게 되고, 다른 지역으로 공연하러 다니는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굉장히 관계가 좋아진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까지 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게 가능했던 거는 그분들이 어떻게든 거기 살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청년은 꼭 여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또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 - 무주 이선영 위원

그래서 청년들만 이렇게 해라 이럴 게 아니라 여기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가교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 전주 김동영 위원

저희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들어간 한 청년들의 수용성에 관한 얘기도 함께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을 이용하고, 혜택만 보고 빠져나간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청년들이 지역에 자기네들이 프로젝트를 받아서 잠깐 있다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적응하는 교육도 필요하고, 지역의 새로운 문화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니까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된다는 의견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 - 순창 김철수 위원

저는 서양화를 했고, 순창예총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향에 돌아와서 우리 순창 문화예술을 보면 활동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빛을 발하지 못하고, 몇 사람만 어울려서 움직이고 옛날에는 대학 다니는 사

람이 별로 없었지만 요즘 젊은 층들은 정말 유능하고 똑똑하고 그런데 빛날 수 있는 계기가 부족해요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고 제가 우리 동네 이장 일도 보고 있습니다. 가장 밑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문화’ 라고 생각해서 초창기는 우리 동네에서 작은 음악회를 4회까지 했어요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동네분들이 적극 참여해 4회까지 열렸는데, 시골인데 한 1000명 정도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화를 보고 접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걸 느꼈고요.

우리 동네가 전체 한 36명 정도 되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한 16분 돼요. 저희 집사람도 그림 그리고, 글도 쓰는데, 동네에서 우리가 점심을 해 먹어요. 점심 먹고 나서 한 시간 정도 테이블을 펴놓고 저희가 준비한 색연필 드렸을 때, 어르신들이 예쁘게 그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 문화가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젊은 층에서 미래를 향해 열심히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골 정세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약 한 60%~70%가 되시니까 우리 주민들이나 아이들도 정말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고 창의성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어른들도 색을 칠하는데 그 성격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오늘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위원들 보니까 정말 내 입장에서 큰 힘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 전주 김동영 위원

저희가 문화예술이 가지는 공공재적 가치가 문화예술 정책에서 강조됐는데, 사실은 문화예술 관련된 청년들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공익 가치를 뛰어넘는 산업적 가치에 대한 접근들이 또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정부의 지원 없는 문화예술가들이 살길이 없었다면 이제는 지역 청년들이 예술과 예술을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실제 그런 걸 보게 되고 있어요.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 지역에서도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고 있는 김수현 대표는 지역 작가들 중심으로 모집해서 지역 작가의 작품을 전국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매력을 높이는 전략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좀 잠깐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 전주 김수현 활동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 미술 시장에 좀 깊이 관여하고 있었어요. 보통 서울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고 나머지 반이 서울 사람이 아닌 것처럼, 아트 시장 또한 서울 작가분들이 별로 안 계십니다. 저는 거기에 주목했고, 전주에서도 저희는 전국을 대상으로 전시회 공모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 작가가 수도권 에이전시에서 채택되고 등용돼 선점하는 것이 아닌 지역에서부터 출발하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작품을 팔자, 그리고 지역 작가들이 계속 예술을 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역에서 작품을 판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건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전시회를 대체하지만, 최소 2점씩 꼭 팔고 있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전국 단위 공모전도 개최하고, 작품을 팔다 보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파급 효과라 생각하는 데, 이 공모전을 처음 진행할 당시에는 접수자가 별로 안 되었어요. 이 갤러리가 어떤 공간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셨겠죠. 그런데 이번 세 번째 공모전에는 무려 300명이 넘는 접수가 있었고, 저희가 자

부하는 건 재단보다 더 낫다는 거. 어제 발표했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접수돼서, 심사속고하느라 발표가 늦춰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런 문화예술 시장도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청년 정책이 막연하게 일자리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능사가 아니거든요. 문화예술 영역은 어느 산업보다 전문 산업입니다. 전문가 영역이어야 되고, 단순히 재미있어 보이겠다, 어떤 기획을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쉬운 접근으로서는 사업 비즈니스 모델 즉 경제적 활동까지는 영항이 못 미친다는 거죠. 초기 1~2년 활동하다 그만두시는 경향이 너무 많고, 정책도 이런 시스템적인 거를 좀 촘촘히 기획해서 설계해야 한다고 봐요. 아까 말씀 주신 문화 기획을 할 청년들이 오래 같이 가기 위한 가이드 라인도 같이 존재해야 하고요. 이게 그냥 중소기업을 돕는 청년 정책이 아니라 좀 더 문화 기획에 맞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부안 이민호 위원

제가 40대인데 흔히들 말하는 청년이라는 세대부터 저도 지역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사업을 계획해 진행할 때 그 지역에 있는 흔히들 말하는 어르신들이 왜 지역의 돈을 외부 단체에 주냐 그러는데,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 팀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왜 우리 돈을 왜 남한테 주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역에 실제 인프라가 많지 않거든요. 공연 인프라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저희도 청년이었을 때, 기획자들은 뭔가 조금 더 다양하고 신선하고 좀 더 재미있는 거를 지역에 보급하고 싶었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계획을 했을 때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언젠가부터 드는 생각이 전문성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는 게 아니고 그걸 담당하는 행정이 전문성이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전라북도에서 나올 것이고, 전주시에서 나올 거고, 제가 있는 부안군에서 나올 거고, 각 지자체에서 나오거든요. 아무리 좋은 계획서를 내도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지역의 어르신들한테서 내려와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세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실적은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이제 바뀌었다는 걸 인지 못 하는 분들도, 어르신들도 계속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세대가 바뀌었다는 거를 계속 좀 어필을 해줘야 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과 서로 멘토링 역할을 하면서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 정책에 맞는 계획을 짜야 하는데, 그 지역을 알아야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교육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너무 절실하게 들어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 – 장수 이서하 위원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어르신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한번 하기 위해서 어르신들 모시려면 대부분 이장님들이 차로 몇 바퀴씩 동네를 돌아야 해요. 그렇게 해서 30명 간신히 모이면 저희가 공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전주의 청년에 대한 고민이, 저희 마을에서는 제가 가장 청년입니다. 저희 마을 청년회 어르신들은 평균 6~70대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젊은 분들 보는 것만으로

도 좋네요. 오늘 오전에도 갓 쓰고 교육하다가 여기 와서 선생님 뵈니 정말 되게 신선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전주 김동영 위원

마무리할게요. 지역에 인구가 왜 필요하나면 사회 경제적 활력을 불러왔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인구 자체가 다 감소하고 있어서 현재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늘어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인구의 효과를 늘려 사회경제적 활력을 높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논의되는 것들이 생활 인구나 체류 형태의 그러니까 잠깐 머무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러한 기능을 한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감소지역특별법에는 생활 인구라는 개념이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지역으로 유입할 때 과거에는 주민등록 이전을 고민했다면, 최근에는 가능한 중장기적인 체류까지도 하나의 지역 인구로 보기 때문에, 지역에는 한 1년 정도 이상 머무는 게 좋다고 보는데, 1년 정도 이상 머무르는 지역의 청년 문화 예술가들이 머무르면서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활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정책이 좀 고민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 좌담회 전문

● 일시: 2022년 11월 3일 15시

● 장소: JB문화공간 201호

● 참석: 김동영, 함경록, 김수현, 서진희, 김도현

**김동영** 제가 있는 연구원에서 인구에 대한 문제도 제가 다루고 문화에 대한 문제도 다루고 있는데, 인구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도시계획이랄지 아니면 사회통계를 다루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문화적 관점에서 인구 문제에 접근하는 분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도 인구 문제에 대해서 문화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문화 관련된 연구자들이 조금씩 지역 인구 문제에 대해서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원하고 장수의 위원님들에게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전주는 외부에서 활동하다가 전주로 와서 활동 중인 문화기획자나 문화예술가가 있으면 추천해달라라고 얘기를 드려서 김수현 향유갤러리 대표님이 오셨고요. 그다음에 장수는 원래 이서하 위원님께서 도자기 공예를 하시는 분으로 외지에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장수에서 실제 활동을 하는 예술가나 문화활동가를 추천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장수미술관의 김도현 학예사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원은 함경록 위원님이 밖에서 활동하시다가 남원으로 들어가셔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남원 안에서 활동하시는 문화예술가나 기획자를 추천해달라라고 해서 서진희 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서하 위원님까지 함께 하면 지역에서 원래 활동하셨던 예술가, 외부에서 활동하셨던 분 한 분씩 이

렇게 해서 6명이 각 지역을 얘기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서하 위원님 안 계시기는 하지만 저희가 실제 지역에서 태어나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바라보는 어떤 지역문제, 그다음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문제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어디서 오셔서 지금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잠깐 소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김도현** 저는 장수미술관에서 전시기획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미술관은 지역 작가님들도 계시지만 장수군 자체가 경상도, 충청도 경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전북 여기 지역에 있는 분도 전시하지만, 충청도나 경상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융합해서 하는 전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저는 전주에 온 지는 3년 차고요. 전에는 서울에서 독립기획자로 전시 활동 중심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현재는 전주에서 대안공간을 운영하면서 예술인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슈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경록** 저는 이 문제에 관심이 있어 비슷비슷한 일들을 예전부터 해왔고, 이게 도대체 원인은 규정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 문제들이 인구감소라고 명명해진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주제를 제시해 주셔서 공부도 할 겸 참여하고 있고요. 남원에서 영상 제작도 하고 관련된 콘텐츠 기획도 하고 있습니다.

**서진희** 저는 저도 남원 출신은 아니고요. 타지역에서 남원에 아무런 연고 없이 가서 어찌어찌 함감독님도 만나고 같이 청년들 모임을 하다가 그 청년들이랑 협동조합을 만들어 지역에서 좀 새로운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자꾸 일 자리만 얘기하는데 놀 게 없는데 그게 문제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놀자’ 라는 이름으로 협동조합 만들어서 지역 콘텐츠를 만들며 문화기획하고 있는 서진희입니다.

**김동영** 저도 원래 전주 사람은 아니에요. 고향은 김제고요. 원래 전공은 문화인류학이고, 지금은 전북연구원에서는 다양한 연구를 합니다. 문화 정책에 대한 것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행복 지표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가장 관심 있고 애정이 가는 분야가 지역의 문화활동가들과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건데, 저한테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반갑고요. 제가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특히나 밖에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셔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궁금한 거 있어요. 왜 이 지역을 선택해서 들어오셨는지 가장 궁금하거든요. 김수현 대표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김수현** 저는 전주라는 곳에 여행으로도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는데, 제가 서울에서는 지역 작가를 발굴하는, 항상 주목하는 핫(hot)한 작가들을 등용시키고 프로젝트를 열고 그런 활동에 좀 지쳐서 언더덕스럽게 지역작가를 발굴해서 서울에서 진출시키자는 목적으로 지역에 답사를 오게 되는 와중에 여유 시간에 대안공간이나 청년들이 자주 가는 공간들을 탐색해보고 했었는데, 전주는 그런 공간들이 제 눈에 없더라고요. 심지어 네이버를 켜고 검색을 했음에도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왜지? 라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현재 제가 그걸 대신해서 대안공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상 전주라는 도시가 저에게는 문화예술도시, 한옥, 한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타지사람으로서 크게 와 닿지 않았습니다. 약간 걸만 포장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역이 가진 핵심 키워드들을 잘 살려서 전시나 문화로 다가가면 어떨까란 생각으로 계속 도전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험혈단신으로 전주에 오신 거예요?누구 소개나 그런 것도 없고요?

**김수현** 예. 정말로 연고가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보같이 그 비싼 전주 신시가지에서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덧붙여 말할 수 있는 건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되니까” 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한번 여행하러 온 것은 이해하는데 여기서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 아닌가요?

**김수현** 그렇죠. 그런데 일단 제 마음에 훅한 거는 타지 사람이 보기에 시장이 너무 좋다. 완전 블루오션인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문화로 돈을 벌면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회적 가치도 바꿀 수 있고 저한테 큰 기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많은 리스크도 있겠지만 저한테도 도전이었으니까. 저도 그때 20대 후반이어서 도전 정신으로 한거죠.

**김동영** 그런데 전시, 기획, 판매 이쪽은 수도권이 훨씬 더 수월할텐데요.

**김수현** 그렇죠. 그쪽에 다 시장이 다 몰려 있고 심지어 저 또한 지금도 수도권을 대상으로 작품을 팔고 있습니다. 전주 시민분들이나 지역 분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게 아니라.

**김동영** 그런데도 지역이 가지는 경쟁력은 뭐라고 보세요?

**김수현** 일단은 청년들이나 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반응하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높은 점수를 줬어요. 시작해 보고 이게 어떠한 변화로 이어지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자고, 제가 다시 돌아갈 장치를 걸어놨거든요. 그 때까지만 해도 저 역시 독립기획자였지만 활동하는 회사에서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저한테 네트워크, 약간 분점 개념으로 활동해보라는 지원이 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는 제가 핵심 책임자가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그럼 전주가 그러한 문화예술의 생산, 창작지로서 경쟁력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유통으로서 본건가요? 아니면 전주라고 하는 브랜드, 장소성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김수현**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저한테는 와 닿아요. 지역 작가님들의 작품성이나 역량이 뛰어나세요. 제 기준입니다. 이게 등용이 안 되고 이슈가 안 될 뿐이지 충분히 싸움할 수 있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었고요. 전주 또한 지역이 가진 힘이 있다고 봐요. 국제영화제, 비빔밥축제 등 여러 행사가 많은데, 왜 아트 마켓이나 문화행사가 크게 주목받지 못하나, 일회성으로 휘발되는 행사들만 많을까 라는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오늘 토론 방식은 아무 때나 끼어들어서 같이 이야기해도 되는데, 사회자가 따로 이렇게 있는 건 아니니까 언제든지 같이 궁금하신 점 있으면 서로 물어가면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경록** 한지나 이런 거 말고 다른 키워드가 있겠다 싶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키워드들을 꼽고 계시나요?

**김수현** 한지는 저희가 그쪽에 잘 알지도 못하고, 저와 큰 연관성이 없어 솔직히 처음부터 손을 안 대고 시작했고

요. 일단 전시문화를 알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경험해보지 못하고, 일상에서 접하지 못해서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놀이를 만들자는 것처럼, 전시회를 관람하는 것조차 놀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뭐 할래 하면 전시를 보러 갈 수 있는 1단계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김동영** 서진희 선생님은 누구 추천으로 남원에 들어가게 되었나요?

**서진희** 저도 아무런 연고 없이 남원에 오게 됐는데요. 저는 도시건축 전공하고, 건축설계가 주 업이어서, 일로 완주에 오게 됐었어요. 제일 오래 산 건 서울이구요. 부모님들은 이사를 좀 많이 다녔고, 그전에 전라남도 쪽에서는 좀 살아봤었는데 전라북도도 외본 적도 살아본 적은 없었고요. 전라북도는 같은 전라도라고 생각해서 첫 이미지가 편할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다르더라고요. 되게 조용하다는 느낌이었고, 아무튼 완주에서 살면서 전라북도를 조금 알게 됐고 같이 일하는 팀이 건축하는 팀이었는데, 공동체를 지향해서 지리산 쪽에 자리 잡으며 남원에 가게 됐는데, 그 팀이 해체되고 저만 혼자 남원에 남게 된 거예요. 제가 지리산 가까이에 살아서 시내 쪽은 전혀 몰랐고, 남원에 그냥 있을까 뭐 할까 고민하다 돌아다녀 보는데 도시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남원도 역사가 깊은 도시고, 도시 계획이 이루어진 곳이지만 개발이나 경제적인 것들, 자본이 많이 흘러가지 않아서 멈춰져 있는 도시, 과거의 것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는 도시거든요. 도시에 그런 구조들이나 남아 있는 것들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런 거를 이제 대학원 과제랑 연결해 혼자서 막 돌아다녀 보다가 아무런 연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람들에게 물어 물어 함 감독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같이 해볼까, 저 이리이러한 것들 생각하는데 어떠냐고 물으니까 재미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해주셔서 용기 얻어 계속 거기에서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도시가 가진 매력이 좋아서 남원에 남아 활동하고 있지만, 이게 돈이 되거나 경제적인 것, 시장성이 좋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힘들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김수현 대표는 이걸 자기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진희 대표는 본업하고 다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경제적 활동은 어떻게 책임지고 있으세요?

**서진희** 초반에는 본업이랑 같이 연결해서 했었어요. 그때는 거의 활동 위주였고요. ‘놀자’ 라는 걸 만들고 남원을 돌아다녀 보면서 저희가 맨 처음에 했던 게, 남원에 가치역이 크게 있었는데 지금 KTX 역으로 바뀌면서 도심에 있었던 가치역이 외곽으로 다 빠졌거든요. 그런데 전주보다 훨씬 가치역이 컸었어요. 가치역 주변으로는 기차 관련된 시설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중에 합숙소가 남아 있었는데, 그 합숙소를 운영하셨던 할머니께서 19년까지 계속 살고 계셨는데 소유는 그분께 아니었어요. 그런데 합숙소가 공매로 나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소유가 넘어가고 이 할머니가 쫓겨나게 됐거든요. 그거를 알고 제가 가서 공간을 한번 보여주실 수 없냐고 했는데, 처음에 할머니가 계실 때는 안 보여주셨는데, 공매로 소유권을 받으신 그분께서 보여주셔서 여기에서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사람들을 모았어요. 남원에 이 공간이 100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 공간이 거기에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진짜 잘 보이는 위치거든요. 거기가 뭐 하는 건물인지, 얼마나 오래된 공간인지, 언제 지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남원 시민들이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3일 동안 빌려 개방하고 예술가분들을 모아 방 하나하나를 전시 공간으로 꾸미는 작업을 했어요. 저희도 그게 처음 해보는 일이었는데, 많은 분이

오셔서 돈을 내고 가셨어요. 그런 게 남원에서는 처음 있는 이벤트였거든요. 여기도 새로운 걸 필요로 하는구나, 니즈(need)가 있다는 거는 확인을 했고, 그런 쪽으로 계속 사업화를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본업을 하면서 그런 활동들을 계속해 오다가 일들이 커지면서 조금 더 사업처럼 꾸려가고 있고요.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는 것도 있고, 보조 사업들로 근근이 버텨가고 있습니다.

**김동영** 그렇군요. 김도현 학예사님은 공부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신 사례인가요?

**김도현** 저는 김제 사람이구요. 오랫동안 전주에 있다가 서울 물 좀 먹고 싶어서 서울에서 1~2년 있다가 다시 내려왔는데요. 사실 저는 문화예술전공자는 아니고, 보존처리 전공이에요.

**김동영** 그러면 고향이 장수가 아니네요?

**김도현** 네. 어떻게 보면 전주가 연고지고요. 타지에서 일을 더 많이 했어요. 저는 극과 극을 좀 체험한 것 같아요. 서울이라는 정말 휘황찬란한 곳에 있다가 장수라는 정말 전북에서도 사람도 없는 곳에서 지내는. 그래서 어떻게 문화예술 기획을 해야 할지 되게 난감해요. 서울에서는 관람객들도 매우 많았어요. 그런데 장수는 그게 아니어서, 손님도 없고 관람객도 없고, 거기다 저는 문화예술기획자도 아니고 보존 처리하다가 전시기획까지 하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동영** 장수는 어떻게 들어가신 거예요?

**김도현** 장수는 미술관 전 관장님과 지금 관장님이 한옥마을에서 같이 일하셨었는데, 소개로 들어가게 됐고요. 저도 전주사람이지만 사실 장수에 갈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전북에서 장수가 어떤 의미인지 떠올리면 잘 안 떠올라요. 장수에서 일하고 있지만 장수가 먹을 것도, 볼거리도 별로 없구요. 제가 장수 생활 2년 차인데 저한테 장수에 관해 물어보면 아직도 뭘 추천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미술관이 규모가 크지 않지만 장수의 유일한 미술관이다 보니 제가 지금은 장수를 어떻게 브랜딩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기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장수라는 곳의 이미지를 미술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알릴 수 있을까 계속 고민 중이고요.

**함경록** 저도 비슷하네요. 서울에서 태어났고 전주에서 대학 생활과 20대를 보냈고 영화를 찍었고, 영화감독 중 독립영화 찍다가 상업 영화를 찍으려면 데뷔를 준비했는데 잘 안됐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영화 준비를 하다 오랜만에 내려왔는데, 전주는 한옥마을로 인해 제가 살던 동문 사거리가 바뀌기 시작했던 시기이기도 했고 이전에 살던 느낌들도 좀 달라지고, 마침 남원에서 일이 들어와 남원에서 한 2년 정도 지내게 됐는데, 동문사거리에서 살 때 좋았던 느낌들이 남아 그대로 있더라고요. 오래된 건물들이나 풍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게 좋았고, 살펴보니 영상을 만들어 주는 업체들도 없어서 내가 하면 어떻게든 먹고살 수 있겠다 싶어 회사 차리면서 남원에 있게 된 거죠. 그냥 그 옛날 동네들을 공부하면서 사는 게 재밌었어요. 여기 어땠는지 뭐가 있었는지. 원래 서울 출신이다 보니까 20대 때 지역 작가라는 호칭이 되게 거북했거든요. 좀 촌스럽다는 느낌도 있었고, 그 '지역' 이 되게 촌스럽게 다가왔는데, 30대를 지나고, 옛 느낌을 찾다 보니까 그 '지역' 이 되게 궁금해졌어요. 전주 살 때는 지역을 공

부하진 않았는데, 남원으로 오면서 내가 사는 지역이 좀 어떤 곳인지 좀 공부를 해보자 해서 알아 가니까 더 재미있는 것 같고 애착도 생기고, 그렇게 지금 남원에서 생활한 지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김동영** 저번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 한 분이 젊은 사람들이 지역을 선택하는 방식이 우리가 취향에 따라 소비하는 것처럼 지역을 소비하는 방식은 아닌가 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도시에서 좀 노는 게 질렸다, 어떤 도시에서 일하며 노는 것과 지역에서 일하면서 노는 것 중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도시가 매력적이지 않은 시대가 온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지역을 소비하는 방식이 어떤 상품이나 취향의 소비처럼 지역에 대해서 향유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서 또 향유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건 아닌가. 좀 더 확대하면 노마드적인 삶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강화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지역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고 그걸 포기하기도 하고 다시 또 선택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런 흐름은 이해되는데, 그 과정에서 왜 어느 특정한 지역으로 들어가느냐, 어떤 지역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느냐는 거죠. 그때 '여기서 뭘 하면은 재미있겠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내가 거기서 들어가면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던 것들이 이 안에서는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요소들이 지역에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역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서 다가오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 어떠신지요?

**김수현** 저도 방금 말씀 주시는 부분에 매우 공감하고요. 저희가 기획을 할 때 전시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연결하고 서로 엮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걸 창출하는 걸 시도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전주에서도 그게 필요로 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전주가 지금 가진 여러 매체를 서로서로 연결해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만든다면 이건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여겨지고요. 저 또한 지역을 택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문화적 인프라가 얼마나 갖혀졌느냐가 선택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봐요. 장수를 예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 저한테 장수는 선택지에서 좀 떨어질 수 있는데요. 사실 장수도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외지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떤 매력들이 있을 거예요. 저 또한 전주에서 당연히 그런 거를 잘 다루고 소재화 시킨다면 지역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유의 아이템뿐 아니라 그 고유의 아이템을 가지고 다른 무언가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시도해 보고 싶어요. 공연도 많고 축제도 많고 전시회도 많은데, 지금 생각나는 것도 너무 무궁무진하고, 시도해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김동영** 서진희 대표님도 앞으로 지역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까요?

**서진희** 초반에는 정말 많았는데 요즘에는 좀 지쳤다고 해야 할까요? 저희가 18년에 만들어져서 이제 5년 차인데, 청년 모임은 16년 5월부터 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이 지역을 소비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역에서 자꾸 청년을 정착시키려고 하는지, 정착해야지만 뭘 해주는 그런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가 초반에 한 프로젝트 중에서 '눔눔' 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청년 모임을 처음

할 때 모였던 사람들이 딱 ‘농농’이었어요. 박힌 농, 굴러온 농, 돌아온 농. 원래 남원 출신으로 계속 남원에 박혀 있는 농이랑 저처럼 완전히 굴러온 농이랑 남원 출신인데 외지에 있다가 다시 돌아온 농이랑 딱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제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청년들을 섭외해서 그 사람들이 왜 남원에 있게 됐는지, 왜 남원에서 뭐 하고 사는지, 뭐 하고 노는지, 이런 거 질문하고 얘기나눴는데, 저는 굴러온 농이니까 버틴 농들이나 돌아온 농들한테 남원은 왜 이렇게 청년들이 없는지, 남원은 왜 청년들이 활동을 안 하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때만 해도 서울은 청년허브나 재단같은 곳에서 청년들이 지원받아서 여러 모임을 만들어 소셜다이닝 같은 것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누군가 대답을 해준 게 남원은 지역사회가 너무 좁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지역에서 다 아는 거예요. 애가 누구네 집 아들인지, 누구네 집 딸인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조금이라도 재밌다고 생각해서 뭔가를 하는데 그게 어른들 눈에 이상하다 싶으면 모든 얘기가 다 흘러 들어가는 시스템인 거예요. 되게 좁은 지역사회니까 튀면 안 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때 그들이 이해되더라고요.

왜 지역 내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활동하고, 밖으로 나가려고만 하고 하는지. 그들이 안에서는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또, 저같이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매력 있다고 느끼는 포인트가 지역에 있는 애들은 매력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지금은 매력 있다고 느끼는 포인트가 전보다 훨씬 더 다양해졌잖아요. 취향이나 기호도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도시가 변하지 않는 것이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이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할아버지 애들까지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이 평지 도시가 가지는 시스템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는 그 주차장도 없어 주차하기 힘든 이 도시가 너무 싫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겹치니까 대부분은 다수의 정책예산이 흘러가는 대로만 도시는 계속 변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도시가 변하는 대로만 생활하고 있고, 어떤 큰 흐름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의견이나 모습을 보이면 바로 눈에 띄는 그런 시스템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역 청년들은 계속 나가려고 하고, 그런 거에 매력을 느껴서 뭔가 해보면 재밌겠다 하는 애들은 좀 왔다가 한 3년에서 5년 있으면 또 이렇게 지역사회가 질려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 같아요. 왜 목포에 ‘관찰아마을’ 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청년들이 고향이 없어서 지역을 더 가보려고 하는 이유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그 말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희보다 윗세대들, 아버지들은 돌아갈 고향이 있잖아요? 내가 사업하고 있다가도 마음으로 ‘고향 가서 농사라도 짓지’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고향이 있는데, 지금 20대, 30대 애들은 대부분 아파트에서 태어난 세대들이고, 공동체로 활동을 해본 기억도 별로 없고, 고향도 없으니까요. ‘관찰아마을’ 이 자기네가 청년들의 고향이 되어 주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맞는 말인 거 같더라고요. 지역 청년입장에서도 자기네 지역인데도 친구들도 없고 비빌 언덕도 없고, 또 도시에서 치열하게 사는 애들도 나름대로 정붙이고 있을 만한 그런 게 없고, 전반적으로 지금 청년들의 심리적 불안 같은 것들이 있어서, 공간을 옮겨가면서 자기가 자신 있게 뭔가 할 수 있을 거 같거나 재밌을 거 같다는 식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서울에서는 내가 이런 생각하고, 이거 재밌을 거 같아 하면 꼭 이미 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에는 별로, 거의 없어요. 대부분 블루오션이에요. 그래서 해보면 재밌겠다 싶은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에

서 돈을 더 벌겠다거나 사업하겠다거나 하면 이해관계들과 부딪히기 시작하고, 그런 거에서 지쳐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케이스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김동영** 제가 순창에서 청년들이 비닐하우스에서 파티하는 모습을 보면서 묘한 뭐랄까 부조화의 조화라고 같은 걸 본 경험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역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거기 안에 살고 있어서 그 지역이 가지는 매력적 요소들을 잘 몰라요. 그런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지역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봐요. 우리의 익숙함이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독특한 매력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걸 이용해 지역 활성화한 사례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일본의 대지예술제가 그런 방식이거든요. 외국에 사는 예술가들을 지역으로 다 불러가지고 그 지역의 매력이 뭔지를 알아내게 하고, 그 지역의 스토리와 예술 작품을 결합해서 그냥 대지 말 그대로 논이나 밭이나 산이나 이런 데다가 설치하게 해서 3년마다 전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제가 그때 봤던 게, 우리는 신호등이 가로로 돼 있잖아요. 그 지역은 눈이 하도 많이 오니까 신호등이 세로로 돼 있어요. 가로로 놓으면 눈이 많이 와서 끊어질 수 있으니까 세로로 된 신호등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게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너무 다른 거죠. 신호등이 이렇게도 놓일 수 있구나. 정형화돼 있던 신호등이 새롭게 보인다는 거죠. 또, 그 지역에 사는 여성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다고 해요. 그런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음식을 먹어본 다음에 음식을 독특하고 맛있고, 건강하다고 평가하니까 관광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돈을 받기 시작하면서 반대로 남자들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음식을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낯설게 보는 것, 우리 문화를 ‘낯설게 보기’ 를 통해 새로운 매력을 끌어낼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까 순창에서 본 건 청년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축제를 하는데, 꿀 농장이었어요. 그래서 꽃으로 비닐하우스를 다 디스플레이하고, 한쪽에 비베큐 통을 놓고, 저쪽에 웰컴티가 놓여 있고, 그런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고기 먹고 술 한잔하면서 같이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잼베를 같이 치며 놓고 그렇게 끝나는 방식이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시골이 가지고 있는 촌스러움이라고 같은 거 하고, 도시가 가지고 있는 세련됨 같은, 두 개가 만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도시에서 만나는 것보다도 시골에서 만날 때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매력, 논 한가운데 비닐하우스 있고, 나머지는 벌과 꽃이 천지에 있고, 그런 곳에서 파티를 하니 저녁이 되면 정말 더 환상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런 환경에서 청년들이 노는 것을 보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귀향이나 귀촌하면 그냥 농사짓는 것에 그치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감성, 새로운 문화를 들고 오는구나, 그러면 그 지역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놀이 방식도 변화하고, 그 사람들의 소비 방식도 변화하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말한 대로 그게 얼마나 지속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문화를 시골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동경하며 시도하다가 안 되겠다, 그냥 서울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청년들이 지역에 왔는데, 과연 얼마나 지역에서 청년들한테 ‘마음껏 해봐’ 라고 하는지, 다른 얘기로 하면 수용성인데, 그런 문화적으로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그 지역이 얼마나 수용성을 가지는 지가 앞으로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고,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다 공감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한 지점에서 혹시 같이 나누실 말씀이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김수현** 일단 서진희 선생님 말씀하신 지역에서 튀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전주에 오면서 처음 느꼈습니다. 제가 다른 선배 기획자들, 지역에서 오래 하고 계신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면서 관계 형성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량을 하자면 제가 그분들보다 더 잘했어요. 그런데, 이게 실력 차이가 났을 때 그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라는 선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저는 더 특별하게 이슈를 만들고 싶은데요.

**김동영** 서울에서는 그게 경쟁력이었는데요?

**김수현** 그럼요. 나이를 떠나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뜻을 보태고 힘을 싣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문화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는 그런 게 좀 눈에 띄면 안 된다는 행동과 비슷한 말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봤을 때, 사실 저도 제가 전시 문화로만 계속 10년, 15년을 가져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만 형성하고 다른 먹거리를 또 찾고 또 찾고 계속해서 움직여야죠. 스타트업이나 플랫폼과 비슷하게 저희는 사업 계획을 또 세우고 어떤 걸 찾을 수 있고 어떤 걸 만들어낼 수 있는지 계속 연구해야 한다고 봐요. 거기서 지역이 얼마나 수용성을 가지고 너희들을 대우해 줄 수 있는지, 얼마나 높이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저는 지역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 공간은 전주에 있지만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성과를 만들어 사례로 발표해도 되는 거고요. 그렇게 좀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안 된다는 것’ 에 대해서 공감은 가는데요. 최근에 장수미술관에서 약간 선정적인 주제로 전시를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전북도립미술관하고 같이 협력해서요. 처음에 기획안을 보고 저희 관장님도 걱정을 좀 하지만 그렇게 가자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관장님이 선정적 주제로 하는 것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저희 미술관 방문자들이 주로 마을분들, 어르신이세요. 그래서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기획을 하신 분도 지역에 연고도 없는 서울 사람이었고, 저희가 약하지만 선정적인 주제로 가려고 한 건 나름 새로운 시도였죠. 그런데 관장님도 여기서 오래 산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 하면 난리나겠구나 싶으셨는지. 저도 많은 걸 느꼈어요. 참 시도는 좋은데, 이게 여기서 막히는구나. 주제는 괜찮았어요. 여성에 대한 관련된 거였는데 이 시골에서 한번 알려보면 어떨까 했죠. 사실 이 전시 전 주제도 똑같은 여성이었어요. 그때는 무난히 넘어갔어요. 그런데 센 주제로 가본 거였는데 막히는구나 싶었죠.

**김수현** 여성이기 때문에 선정적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주제인지 좀 구체적으로.

**김도현** 혹시 정하연 작가님이랑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설치 미술을 했는데, 똑같은 여성 주제였어요. 성적인 요소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노출이 주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다음에 하신 작가님은 같은 여성이 주제인데, 성적인 측면에서 노출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꽃인데, 자세히 보면 성적인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갈등을 많이 한 거죠. 처음에는 저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자고 했고 처음에는 관장님도 오케이를 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의견이 바뀌며 커팅 되는 걸 보고 아쉬웠죠.

**김수현** 기획전인가요?

**김도현** 장수미술관하고 전북도립미술관하고 함께 기획한 전시였어요. 같이 하는 시스템은 좋았는데, 관장님께서

스스로 내부 검열을 하신 거죠. 그간에 전시 경험에 비추었을 때, 저희 미술관이 유한 느낌의 전시 주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시를 일주일 안에 싹 바꿔버렸어요. 그냥 과일 전시로요. 관장님도 저도 처음에는 걱정을 좀 했어요. 이걸 하면 분명히 컴플레인 들어올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정말 노인들 중심이고 아니면 아이들 가끔. 대학생들은 거의 보기 힘들어요. 가족 단위도 많이 와요. 기획자가 청년이었고, 저도 함께 협력해서 해보자 했는데, 그게 좌절되는 거 보고 안타깝다고 느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해는 됩니다.

**서진희** 그러니까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 구조가 있잖아요. 특히 남원 같은 대부분이 농촌이거든요. 농촌이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적인 특징이 대부분 같은 일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루틴이 있을 거고, 또 그만의 문화가 있고, 거기에는 하지 말아야 하는 약속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에게 그 일을 하며 살라고 하지도, 그렇게 키우지도 않았잖아요. 거의 공부 시켜서 계속 나가라 나가라 하며 키운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가서 저처럼 건축도 하고, 영화도 하고, 미술도 하고, 패션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살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오든지, 저처럼 이렇게 가든지, 그런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생활패턴을 가지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이분들한테는 그게 생소한 거잖아요. 이분들이 보았던 문화와 너무 다른 문화여서 배타성을 가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해되기도 하는데, 하지만 그게 도덕적으로 잘못되지 않았으면 무시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다시 돌아오는 청년들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다시 돌아오는 자기 자녀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조용히 있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뭔가 여기서 해보겠다는 것들을 지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주로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오라고 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같은, 지역에서 자기가 가진 기반들을 바탕으로 굉장히 많이 서포트하면서 이 청년들이 또 지역에 새로운 세력이 되게 하는 그런 것들도 보여요. 저같은 굴러온 돌로서는 되게 답답할 때가 있고요. 게이시수라고, 어떤 도시가 창의적인 도시인가 얘기할 때 게이시수라는 말을 쓰는데, 남원의 게이시수는 정말 땀겨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양한 것들을 봐주기 싫으신 걸까. 그런 생각들을 해요. 수용성과 배타성은 어쨌든 도덕성과도 상관이 없는 거지만, 도시의 산업과도 연결되어 있고, 오랜 역사로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 것이라 대부분 농촌 지역인 전북에서는, 전주 이외에 다른 지역들은 장수도 그렇고, 남원도 마찬가지로 배타성과 다양성을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거냐 그거를 찾지 못하면 되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김동영** 그러한 지점을 찾아가는 프로젝트 같은 거 혹시 고민해 본 적은 없어요?

**서진희** 초반에는 청년들이랑 청년들 관련해 이야기하는 자리도 많이 만들어보고, ‘놈놈놈’ 같은 것도 해보고 그랬죠. 사실 처음에 했던 그 프로젝트가 ‘남원 철도999’ 라고. 그런데 그건 농촌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신 건 아니었는데, 남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지역에서는 문화 관련해서는 돈을 내지 않으세요. 그런 부분들을 재단에서도 고민하시겠지만, 무료로 다 지원해 주시잖아요. 향유하는 참여자들도 대부분 무료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행위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바로 그냥 등 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처음에 기획하면서 다 재능기부하고 했는데, 이것만은 진짜 우리도 돈 들여 가지고 하는데, 공짜로 못 하겠다 해서 그때 입장료를 만

원씩 받았어요. 그런 게 거의 처음이었다고 하거든요. 만 원을 받는데도 100명 넘게 오셔서, 이슈가 됐어요. 그런데 그 뒤로 더 사업화해서 늘려가 보려고 했더니 돈을 받는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나쁜 소문들도 많이 나더라고요. 재는 지원금 받아 사업하면서 왜 우리한테 돈을 받냐, 자기들 배 불리려 한다고, 사실 지원금 규모가 프로그램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 전혀 아닌데도요. 저희가 지역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면서 돈을 받겠다는 기조로 했을 때, 괜찮았고,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게 계속 유지되지 못한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청년들이랑 자라들 만들어서 왜 여기 사는지 우리는 여기에서 일자리가 필요한 걸까, 놀 게 필요한 걸까, 질문들을 던지고 얘기 나누고 했는데, 세대 간에 소통은 사실 잘 안되는 느낌이었어요. 저희도 한 3년 정도 계속하다 답했다고 해야 하나, 저 스스로도 답답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도는 잘 안 하고 있어요.

**김동영** 그러니까요. 지역이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수용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사실 청년이 아니더라도 도시가 가지는 경쟁력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처드 플로리다가 다양성에 대한 수용이 많은 도시일수록 창의적 산업이 잘 육성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저는 이제 지역에서 다양성에 대한 수용을 어떻게 높여갈 거냐는 측면에서도 기성세대들에게 그냥 놔둬서 될 문제는 아니고 청년들이 함께 풀어가면서 해결해야 할 하나의 숙제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컨대, 일본의 가미야마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 가면 IT 기업이 한 20개 정도 들어와 있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거기서 제일 먼저 문화예술레지던시 사업을 했는데, 외국의 예술가들이 들어와 따로 호텔 같은 게 없으니까 지역 주민들 집에서 머물면서 생활하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 강사나 교사들한테 연수받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외국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들이 와서 뭘 해도 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 자체를 재미있게 느끼기도 하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단계가 되니까 그다음에는 누가 들어와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면서 얘기한 IT 기업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수제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들어오기도, 그들이 원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동네가 변해가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청년들이 풀어야 할 숙제처럼 노력하면서 해결하는 과정들도 함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지역에 그런 시도들이 없었기 때문에 새롭게 느껴져 기회를 주는 건데, 그것만 바라고 지역이 원래 가지고 있던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것이나 튀어나가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느슨한 연대라는 것이 가지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강력한 네트워크가 가지는 힘도 있으니까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결합할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고 봐요. 한쪽은 계속 느슨한 관계를 원하고 한쪽에서는 조금 더 강한 네트워크를 원하는 게 대립 관계는 아니라고 보는데, 아무튼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서진희** 저는 지역에 정착하려면 1~2년 살아보자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지역의 다양성을 파악하는 데도 2~3년 시간이 걸리고, 자기가 뭘 할 것인지 과제를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는 데도 시간이 더 걸리고요. 남원은 그런 좋은 사례가 산내에 있기는 해요. 거기는 원래 주민보다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동네인데, 귀농귀촌 1번지여서 그런 문화가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를 잡았고, 조그만 면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소비하는 대표적인 시골 동네 중 하나이기도 해요. 그런데 산내는 지리산 안쪽에

있어서 거리가 좀 있고, 남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많은 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인간적인 관계만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긴 호흡으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내가 하는 것들이 당신들이 사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걸 계속해서 꾸준히 보여줘야 그분들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당신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사기 치려는 것이 아니다, 돈만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도 지역에서 지역콘텐츠,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활동하는 거라는 진정성을 이해시키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김동영** 산내는 특히 외지에서 온 사람들끼리 약간 갈등이 좀 있잖아요?

**서진희** 거긴 워낙에 다양하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젯거리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함경록** 그래도 산내는 공간적으로 마을이라는 제약이 있어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하니까 갈등이 많아도 결국은 서로 이해해주거나 해결해 주는데, 도심권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문화 내지는 이런 영역으로 가버리면 뚜렷한 답이 보이지 않아요.

**김동영** 산내면은 그렇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됐죠. 과거에는 진짜 인구 하면 무조건 들어와서 살아야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지를 옮겨야 하고, 아까 서진희 대표님이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없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청년들의 정주 여부와 상관없이 그 지역에 와서 뭔가를 시도하면 무조건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시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지역이 해결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방금 얘기한 청년들이 놀거리가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 이동 수단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노인 관련된 돌봄이 농촌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고 있지만 갈수록 치매 노인이 많아지는 것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하려는 활동들이 굉장히 생소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저는 그게 지역의 새로운 해결책을 주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주든 잠깐 머무르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 다만 그 지역에 와서 어떤 시도를 할 거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은 누구든지 오라는 식이지만, 앞으로는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 우리가 가진 자원이 이걸데 그걸 가지고 여기 와서 뭘 할 수 있느냐 하는 걸로 선택이 될 거예요.

제가 아까 가미야마라고 하는 마을 얘기한 게 거기는 동네에서 하는 워크(week)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그 동네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해보는, 할 만하다 싶으면 남고 아니면 떠나라고 하거든요. 저는 앞으로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청년들을 어딜 가든 다 좋아하지만, 앞으로는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청년들이 젊었을 때 누구를 만났고 어떤 기술을 배웠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도시에서의 경쟁을 피하려고 지역을 선택하는 것 대신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에 의해서 지역에서의 선택도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가는 노력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가 곧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든 일이든 지역에서 일을 찾기 또는 일하기라고 하는 점에서는 어떤지도 궁금해요. 꼭 본인 말고 주변에 있을까요?

**서진희** 일자리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풀리는 게 지역이기는 하잖아요. 일본에 있는 건데, 도시의 청년들이 1~2년 단기로 정주하지 않아도 자기가 하던 일을 지역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지역 청년들은 맨몸으로 가서 맨바닥에 부딪혀야 하는데 지역에 살아보게 해주는 경험도 자기가 하던 일도 지원받으면서 지역이랑 자기가 맞는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니까 되게 좋은 제도라고 봤었거든요. 비슷하게 서울시에서 넥스트로컬이라고 지역에 사회적 기업하고 연결해 도시의 청년들이 지역에 가서 1년 정도 일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일이 별로 없다고, 예를 들어 디자인을 좀 한다, 일러스트를 좀 한다고 하면 지역에 가서 홍보물을 만들거나 디자인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요구나 질적 수준이 낮으니까 자기 경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고, 일하는 관계가 서울에서와 다르다 보니 거기서 오는 답답함 때문에 계약 기간이 1년이면, 1년을 다 채우고 가는 청년들이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몇 개월 해보고 그냥 떠나서 공석이 되고 계속 비는 거예요. 지역에서 정말로 도시에서 온 청년들이 지역에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자기의 커리어를 펼쳐보게 할 수 있는 기업이나 업체와 연결되면 좋은 기회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런 게 좀 안타까웠어요.

**김수현** 저도 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일자리 창출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저희가 갤러리지만 예비 사회적 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일자리도 지원받고 지역에서 문화예술에 관심 있어 하는 청년들을 취직시켜서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수용성을 가진 기업도 좋지만, 청년들의 역량도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지원받아 여러 인턴을 겪어봤을 때, 사실 너무 수준 미달이었고, 그러면 열정이나 성실도나 어떤 뜻이 있어야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워라밸만 가지고 있고, 저는 워라밸이 나인투파이브라는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추어졌을 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지역이나 단체, 기관들과 사업을 만들 때 충분한 연구와 공부를 해야 해요. 사업 참여자도 서로 뭔가 경쟁하며 공부해야 성장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 발표(p)하고 있으면, 기관장이나 사업 부서 팀장님 모두 관련해 전문적인 지식이 넘쳐요. 그래서 그걸 따려면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만 성과를 내거나 사업 참여 대상이 되는 건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사실상 p를 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부서 담당자가 전문성이 없고 그렇다 보니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해도 뭐가 뭔지 모르게 되니까 일자리 창출의 목적을 제대로 가지고 가야만 취지에 맞게 행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영** 제가 인구 정책 연구할 때, 지역에 가면 시군담당자들이 지역에 유소년들,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 때문에 지역을 안 떠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럴 때마다 ‘떠나게 놔둬라.’ 라고 말해요. 사실은 지역 유동성이 높은 나이가 20~30대예요. 특히 20대가 전국적으로 가장 높아요. 저는 그러한 청년들이 넓은 세계로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또 다양한 기술이나 지식도 배우고 경험도 쌓아야 지역에서 이 사람을 다시 데려다가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잡아놓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돌아오게 만드느냐, 우리 지역에 인재들이 돌아와서 일할 기회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경험을 하는 기회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더라도 더 넓은 데 가서 경험할 기회는 있어야 하는 거죠. 저는 그

런 기회들이 교육 차원에서 더 많았으면 좋겠고,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지역 안에서 능력 있게 일을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은 하지 않고 능력은 배양을 안 하면서, 그냥 모두가 즐기는 삶을 추구하는 방식은 어쩔 거나 없어요. 그래서 지역이 가지는 기회가 의미 있다고 봐요. 옛날에는 기업이 많은 곳, 꼭 거기 가야만 일을 하는 조건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기업이 아니라 내가 일하기 좋은 곳,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일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아니잖아요. IT라고 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기서 디자인해 이메일로 싸도 큰 문제나 일이 생기지 않잖아요. 여기서 편집해서 싸줘도 큰 문제 안 되는 시대에서 지역이 가지는 경쟁력이 새롭게 지금 드러날 수밖에 없고, 지역 청년들에게 지역이 가지는 문화적 고유성 또는 생태적 고유성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서진희** 청년 일자리를 지역에 만드는 제도를 실행할 때는 좀 더 세심한 무언가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역량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타지에서 온 청년들은 지역에서 적응하는 거라든지 '지컬'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지방컬리티. 서울에서 들은 것은 아니고 남원에 와서 처음 그 말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낮은 컬리티라는 말을 하는 것이, 지역 컬리티라는 말이 지역의 고유한 특징이 살아나는 컬리티라는 말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이라고 해봤자 2~30대 경력이 얼마나 길게 했을까요,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낮은 경력일 텐데, 일자리가 청년들에게도 경력으로 쌓이길 원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가 자기의 커리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 되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기준 없이 질려서 다 시돌아가 버리게 하는 일들이 지금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김동영** 제가 이서하 장수 위원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생각인데요. 이서하 선생님이 수도권 예술가들하고 다양한 교류 사업을 하더라고요. 이게 지역에 인재가 없어서라기보다 이런 게 훨씬 더 지역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지역에 들어오니까 그동안 지역 내에서만 끽끔씩 하던 것들이 새로운 네트워크로 형성되는 거거든요. 수도권의 다양한 예술가들하고 결합해 지역에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 아닐까 싶은데, 김수현 대표님이 조금 더 보충해주시죠.

**김수현** 저희는 지역 작가 전시회를 지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전국에 있는 작가를 전주로 모십니다. 공모전이 계속 통하고도 있고, 이번에 세 번째 공모전을 개최하는데 홍보물, 대관료, 기사, 보도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 지역 작가님은 절대 지원하지 않아요.

**김동영** 100% 그냥 민간에서 하는 거예요?

**김수현**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데 접수 기간이 한 2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받다 보니까 벌써 200건을 넘었습니다. 세 번째다 보니까 소문이 난 거죠. 그리고 향유갤러리 하면 당연히 수도권, 서울에 있을 줄 알았는데 전주에 있네? 놀라워하고, 이제는 진심과 가치를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작가들에게도 소문이 난 거죠.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또 그들이 소문내고 그랬는데,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지역 작가들이) 이런 기회가 있었을 때 잡지 못하는 게 또 심지어 이 기회를 좀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사정상 10분의 작가만 지원해드려

요 그런데 이걸 더 촘촘히 쪼개서 세 팀을 지역 학부생들한테 기회를 줘보자고, 그래서 군산대, 원광대, 전북대 친구들이랑 학과장, 교수님들한테 연락을 취해도 전혀 적극성을 볼 수가 없었어요. 교수님들은 관심이 일단 없고 학부생이라도 관심이 있어야잖아요? 왜 학부생들한테 전시회 기회를 주려고 했냐면, 수도권이랑 비교하기는 싫는데, 수도권은 정말 치열하게 싸워요. 어떻게든 학부생일 때 많은 경험을 통하고 졸업 이후에 어떻게 사회로 나갈 건지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데, 지역 학부생들은 전혀 간절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설득과 미팅을 통해서 겨우 겨우 그들에게 전시 기회를 주고 있어요. 앞으로 할 예정이에요. 왜 그들한테 기회를 주냐면 저희는 전시회만 개최하고 끝나는 공모 사업이 아니거든요. 정말 신진작가를 제대로 발굴해서 그 친구들이 갤러리 타이틀 가지고 미술시장, 아트페어에 참가하기까지 키우고, 이 과정을 겪은 학부생들이 내가 이런 걸 경험했더니 이런 게 좋다고 친구들한테도 알리고, 너무 모르니까 계속 안주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서요. 자기네들도 경쟁력이 없고, 모두가 그런 막힌 시선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변을 살펴보면 경쟁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을 시도하고, 도전적으로 해야 한다고 봐요. 저는 지역 작가에게 무료로 대관해 주는 건 솔직히 의미 없다고 봅니다. 저는 매개자 역할을 취하고 있는데, 이 매개자들이 좀 더 큰 눈과 시선을 가지고 다른 지역과 교류하면서, 지역에서의 활동을 중심에 둘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누군가와 소통하고 있는지 누구와 협업하고 있는지, 어떤 기업과 교류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김동영** 그런 기회들이 많아지고 새롭게 생기는 거죠.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순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서하 선생님 오셔서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는데, 지역은 어찌 보면 고립되어 있는데, 새로운 청년들이 지역에 들어오면서 네트워크가 좀 더 넓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술하는 분들이 지역에서 그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서진희 선생님이 이게 막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차원이라면 김 대표님은 어떻게 돈을 버는지가 궁금했거든요. 유료 전시를 하는 것인지, 월로 돈 버는지, 돈은 벌기는 벌어요?

**김수현** 저희가 대안공간이면서 갤러리 카페로 운영되고 있어요. 저희 카페가 스타벅스보다 비쌉니다. 입장료를 2천 원 받을 바에 커피값에 얹어서 받자 했는데, 관람객들은 두 가지를 같이 소비하니까 전혀 인식하지 못하더라고요. 좋았으니까 비싸다고 돌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좋은 문화를 경험했으니 충분한 소비라고, 커피값은 7~8천 원입니다. 커피는 안 마셔도 됩니다. 입구부터 무료 관람이라고 써 있어요. 카페 수익으로 팀원이나 작가분들 모두 지원하고 있고요,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은 작품 판매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역 시민이나 관람객 중에 아는 컬렉터도 없고요, 저희 리스트에 있는 분들한테 제대로 팔 곳에 팔자 이거예요. 수요가 없는 곳에 팔지 말고 오히려 (수요가 있는) 쪽에 집중해서 팔고 비영리는 갤러리 안에서 하고요, 저는 비즈니스 모델, 비영리 활동을 제대로 구분 지어 할 때 지속가능한 구조가 되지 않을까, 경계가 너무 모호하면 저도 그렇고 팀원들도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몰라요. 정확히 가름해야 팀원들도 따라간다고 봐요.

**김동영** 지역 작가들 작품도 판매가 잘 되나요?

**김수현** 저희는 일부러 지역 작가 판매를 아껴두고 있어요. 왜냐면 아트페어 참가하려고요, 이력을 안 남기려고요. 저희 갤러리에서는 지역 작가님이 전시를 하면 무조건 2점 이상은 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가지고 전국에

서 전시하려고 해요. 제가 서울에서 대관해 전시할 수는 없으니까 게릴라 전시를 할 예정이에요. 빈에 지역 작가 작품을 싣고 게릴라 콘서트처럼 작품 전시회를 여는 거죠. 저는 프로세스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지역 작가들로 이슈를 만들려고도 하고, 카페 수익도 있지만 저희는 사무실에서 운영되는 프로젝트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어떤 플랫폼에서 링크를 접수받아 활동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서 최대 많이 벌었을 때, 프로젝트 링크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월 3천(만원)을 벌었어요. 전주 지역에서 만. 그런데 소비자들이 대부분 10대이었어요. 10대들을 위해서 저희가 뭐 했냐면요. 보통 미술관이나 갤러리가 매 주 월요일에 쉬잖아요. 저희 또한 매 주 월요일날 쉬는데, 그날 공간을 놀릴 바에는 이 친구들한테 놀이터를 제공해 주자고 해서 공간 문을 열어둡니다. 월요일은 마음껏 그래서 취약계층한테 전시해설도 해드리고, 그 친구들이 공간에 와서 노래를 부르든 창작을 하든 잠을 자든 뭘 하든 상관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걸 저희끼리 비영리로 해 왔었는데, 좀 더 기관과 협업하려고, 무언가를 더 만들 수 있을까 노력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 추론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 친구들이 소비하는 거, 문화예술 소비에 대해서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들을 후킹(hooking)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있다면 지갑은 열려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그렇게 돈을 벌고 있어요.

**김동영** 전시 판매를 넘어서서 다양한 활동의 플랫폼 역할까지도 생각하고, 실제로 하는 거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사실 수도권에서 활동하시다가 오셔서 수도권보다도 지역이 가지는 문화예술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점은 명확할 거예요. 전라북도 안에서는 전주와 그 외의 지역에 대한 차이도 크거든요. 전주는 문화 향유 지표 조사를 하면 항상 높게 나오거든요. 향유에 대한 지수도 높고 실제로 수요도 높고, 반면에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문화적 집중과 소외가 우리 지역 안에서는 전주 중심과 그 외 지역의 소외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러한 지점에 대해서는 실제로 활동하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서진희** 확실히 차이가 있죠. 전주에서는 지갑을 많이 열긴 하죠. 남원 애들도 전주 와서 지갑을 여니까 청년들 만나면 맨날 하는 질문이 '남원에서 뭐 하고 놀아' 이거거든요. 그런데 남원에서 노는 애는 없어요. 친구가 있는 애들도 별로 없고, 거의 전주 아니면 광주로 가거든요.

전북 안에서도 각 지역별로 청년들이 다른 특징을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복학왕의 사회학' 이라고 지역 청년들의 특징 같은 걸 사회학자가 쓴 책인데, 그거 보면 지역 청년들이랑 너무 잘 매칭이 돼요. 가족 중심적, 자기를 내세우기보다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진짜 옛날 드라마에서 볼 법한 선보는 상대편 아주머니가 직장에 와서 계속 앉아서 그 아이를 주시한다거나 이런 식의 것들이 아직도 농촌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그 청년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아무튼 저는 지역별로 청년들의 특징이 있다고 봤고, 사실 문화도 지역별로 특색들이 분명했었는데 교통이, 미디어들이 발전하면서 특색들이 점점 흐려지고 있잖아요. 실제로도 판소리에 대해서도 확연하게 달랐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저는 남원의 문제나 남원의 답답함은 남원 애들이 더 잘 알 거로 생각했는데, 개네 얘기를 들어보면 개네는 밖에 나가보지 못했으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매력을 가지는지 모르고, 목포에 '관찰아마일' 말고 또 다른 청년활동 팀이 '거북이' 인가 그래요. 개들은 목포 토박이들 모임이고, '관찰아마일' 은 다 외지에서 온 애들인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진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북이들도 자기들이 목포에서 계속해서 살면서 느끼는 어떤 답답함이 있을 건데 목포를 떠나서 해결하

지 않고 거기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애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지만 우물 안은 누구보다 잘 안다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의 문화를 알고 활동을 할 때 실제로 되게 갈등이 많이 생겨요. 내가 당신들보다는 시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더 안다, 새로운 것을 주는 것도 필요한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도 지켜줘야 하는 부분들도 존중해 주면서 봐야 하는데, 저는 놀거리라든지 이런 문화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으면서 가야 하는지가 되게 고민이거든요.

**김동영** 그러니까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 특히 전라북도 안에서 전주에서 하는 거랑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게 다 독창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걸로 인식되면 좋은데, 약간의 위계를 가지니까 저는 그런 지점들이 굳이 필요한가 생각도 들지만, 여전히 그런 지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서진희** 사실 예술을 뭐가 더 낫고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고 이거를 판단할 수는 없는 거지만, 서울에서 왔다고 하면 더 좋게 보는 것 같은 그런 게 사실 지역은 많이 있잖아요.

**함경록** 제가 전주에서 10년, 남원에서 10년인데, 지금 남원에서 하는 지역의 한계에 관한 얘기가 예전에 전주에서도 똑같이 들었던 얘기고, 전주라고 특별히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울에서 전주에 왔을 때 제일 충격적이었던 단어가 중앙이었어요. 한 번도 그 중앙이라는 단어를 써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르신들을 만나면 중앙이라는 말이 계속 들리는데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원에 가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이 생기면서, 한옥 마을이 생기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남원에 비해 확실히 어떤 수요가 많아졌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남원에서 요즘에 조금 핫갈리는 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나 제가 하는 활동들이 생계에 연결이 됐으면 좋겠고, 이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야 생계로 연결될 텐데, 남원이 문화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주체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거리감이 생기는 지점이 문화 활동을 활발히 하는 분들이 거의 50대 중반에서 60대 넘어가는 분들이에요. 제가 오전 9시에 시작하는 강의를 있는데, 그분들은 그 수업을 들으러 오세요. 그리고 제 아이들이 저녁 7시에 농악을 배우려고 주민센터에 가는데, 거기도 계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런 활동들을 즐기시고, 본인들이 주체적으로 행사를 하기도 하고, 구경을 가기도 하고, 남원시에 있으면 그런 활동들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저랑 연령층이 벌어지다 보니까 같이 엮어서 어울리거나 만들어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전주에 있을 때는 또래들이 모여서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서진희** 인구수 대비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100명 있는 집단에서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2~3명 있었는데, 10명 안에서 나랑 똑같이 생각한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같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원에는

**김수현** 인구수 대비 사업 참여자가 많고 적음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지역마다 문화예술 수준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심지어 남원이 향유하는 사람이 적지만 저는 전주보다 문화예술 향유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직 조사해보지는 못했지만, 지역의 문화센터가 남원처럼 활발하게 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것만 따져 봤을

때는 남원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이게 꼭 도시의 규모로 판단할 기준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동영** 저희가 순서대로 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들은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대안을 찾기보다는 저는 서로서로 현재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실제 지역 문화예술 활동들이 인구감소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대안 활동으로 연결되면 또 새로운 기회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모습들도 확실히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도현\_ 문화예술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참여했고, 이서하 관장님처럼 오래 지낸 것도 아니어서, 제가 장수의 얘기를 제대로 못 했어요. 공감도 가는 게 많았는데, 남원 사례 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대신 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김수현** 저는 오랜만에 이런 자유로운 토론회에 참석해 너무 뜻깊었고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어떤 해결책을 못 찾을지언정 이렇게 얘기하는 시도는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경록** 저는 최대의 고민이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 인데, 3년째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잘 안 돼요. 이런 자리들도 어떻게 하면 계속 제 걸로 가져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중이고, 그래서 좀 많은 자리에서 만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리 감사했습니다.

**서진희** 저도 지역에서 문화로 먹고 살기가 가능한가와 관련해 요즘 엄청 바닥을 치고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얘기 나눠서 재밌었네요. 감사합니다.

**김동영** 제가 90년에 제가 대학에 입학했는데, 90년대 중반쯤에 ‘노동의 종말’ 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한 선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때 한국종합예술대학교의 이동연 교수가 문화의 시대가 올 거야 했어요. 실제로 90년대 중반에 주5일제가 되고 놀토가 생기면서 노동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노동의 종말, 노동을 하지 않는 시대가 오는가, 노동의 시간이 줄어들면 나머지 시간은 뭐 하고 살까 그래서 문화가 중요하다. 앞으로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올 거니까 그걸 준비해야 한다고. 그때 진짜 백가쟁명처럼 정말 엄청난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실제로 더 노동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처럼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 자체가 일이 끝나고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코로나 거치면서 굳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그냥 조용히 자기 일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세컨드로 하는 게 훨씬 더 멋진 그런 시대가 되는 과정에서 저는 문화가 가지는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고, 실제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진화론 쪽으로도 문화예술 또는 유머 있고 잘 노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더 끌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처럼 저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매력 있는 사회가 지금 오고 있다고 보고, 그 중간쯤에 지금 청년들이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규직이 많이 없어지고, 종신 고용도 없어지면서 이전보다 좀 팍팍한 삶이죠. 저는 시대가 중첩되며 흘러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있는 세대나 조금 넘어서 그다음 세대들한테는 진짜 노동하는 시간보다 쉬는

## 🏠 환경과 생태에 대한 문화예술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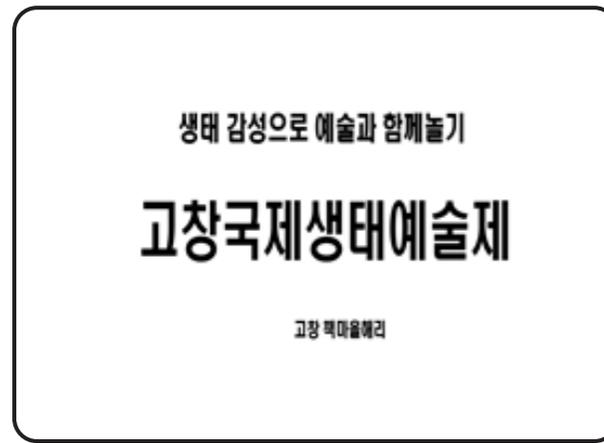
군산	김춘학
김제	김찬주
진안	홍육진
무주	이선영
순창	김철수
고창	이대건

시간이 더 많은, 주 4일 3일이 되고 어느 순간에는 일과 놀이가 결합하면서, 리모트 워크나 오케이션이 너무 자연스러운 사회로 갈 수도 있어요. 그때 아마 이렇게 문화예술을 하는, 그 시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중요해지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꼭 도시가 아니어도 지역이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 지역의 경쟁력 또는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걸 조금 빨리 잘 준비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듬 3\_ 환경과 생태에 대한 문화예술의 대응활동

- **참가위원:** 김춘학 다이룸협동조합 이사장(군산), 홍욱진 진안신문 기자(진안), 김찬주 백산면사무소 사무장(김제), 김철수 한국예총 순창지회장(순창), 이선영 아이엠무주협동조합 대표(무주), 이대건 책마을해리 대표(고창)
- **지역활동가:** 양은정 문화기획자(순창), 김춘학 다이룸협동조합 이사장(군산), 김찬주 백산면사무소 사무장(김제), 홍욱진 진안신문 기자(진안), 이대건 책마을해리 대표(고창), 이선영 아이엠무주협동조합 대표(무주)
- **결과공유회**
- **발 표:** 이대건 책마을해리 대표(고창)





**진안군 다형면 토종씨앗 활용사례**

**토종씨앗=과거의 씨앗 = 미래의 씨앗**

**토종씨앗=식문화+ 미래지향+ 좋은 먹거리+ 환경지킴이**

**진안군 다형면 토종씨앗 활용사례**

씨앗수집 토종기록집 3권 발간 채종포 & 씨앗나눔 & 교육 토종농산물먹거리

**지역의 발전**

- 사라졌던 논경작자 진안읍 5일장에서 판매 시작
- 씨앗을 수소문화로 알려낸 부영다리콩을 심기 시작
- 토종 부영다리콩 재배 면적 증가, 두부로 가공판매 시도
- 양온병이될 병을 만들고 토종밀가루를 파는 가게 등장
- 토종밀 재배면적 증가

저희 3모듬은 고창, 군산, 김제, 무주, 순창, 진안이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환경과 생태 활동이 어떻게 문화예술 활동과 연결이 되는가 그런 접점을 좀 찾아보고자 했던 모듬입니다. 의제 선정은 단독방에서 한번 만났고, 1차 전체 모임 때 이런 의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위원께서 모여주셔서 모듬이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줌(zoom) 회의 때 과연 기후위기, 생태전환의 문제를 문화예술로 어떻게 풀어내고 또 낼 가능성이 클 것인가, 보편적으로 그런 활동들이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활동가들을 찾고 인터뷰를 해보자 했는데, 어렵지 않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회의도 줌(zoom)으로 진행했고, 이후에 다들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 후 자료를 준비해 세 번째 대면 회의를 고창에서 했습니다. 결과보고회 발표를 준비하면서 지역별 사례를 먼저 나누었고, 그 사례를 통해서 문화예술 활동으로 혹은 문화예술교육 활동으로 연계가 잘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확장될 가능성은 더 크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줌(zoom)으로 마무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실제 진행한 여러 활동이 문화예술과 교육이 연계된 프로그램들로 굉장히 잘 이루어졌고, 문화예술교육으로 구현될 때 훨씬 더 정확한 메시지가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을 각자의 사례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정책적으로 기초 문화재단이나 광역문화재단에서 사업으로 만들어지고 내년에 지역에서 이 같은 활동이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게 지원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기초 혹은 시민에서 활동하는 것을 넘어서 의지가 있는 지역들끼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동으로 함께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책적으로 사업화하고 그게 반영이 돼서 예산 지원도 이루어지면 좋겠다, 특히 교육 중심으로 활동을 확장하는 분들이 많아 그런 부분으로 예산이 확장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지가 있는 지자체, 기초단위에서부터 네트워킹해서 실현하는 건 더욱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3모듬이 서로 사례를 발표하고 나누고 했던 것 자체가 네트워킹의 성격을 드러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고창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고창에서는 특별히 생태 관련 활동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문화예술 활동하고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 저희가 진행한 사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영상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관람> 이 활동의 주체는 예술가가 멘토가 되어 지역의 멘티들이 함께 생태와 관련한 여러 영역을 예술 활동으로 실행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용가 선생님이 오셔서 움직임을 통해 보통의 삶에서 생태적인 삶으로의 전환해보는 것을 처음에 진행했고, 윤동환 배우님이 오셔서 전체 과정을 각자 영상도 찍고 편집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또, 낙서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생각을 낙서하며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낙서 프로그램 사이에 바닷가에서 쓰레기를 줍는 비치코밍 (beachcombing)을 했는데, 아이들이 한 번 뭍 줍기 시작하니 엄청 재미있어 했어요. 상괭이 모양으로 갯벌을 크게 파서 거기에서 플레이도 했는데, 곧 쓰레기가 다시 차긴 했습니다. 바다의 부표를 주워와서 씻고 말려서 만들기 프로그램도 했고요, 고창에 상괭이라고 하는 작은 돌고래가 있는데, 작은 돌고래를 모아서 큰 돌고래 모양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상괭이 관련 그림책 중에 있는 부분을 아이들과 같이 해봤습니다. 이걸 철제로 만든 상괭이 모양인데, 그냥 만져보면 차갑지만 아이들이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과정이었고요, 건축가 선생님과 함께 우리의 집, 나무 위의 집, 내 집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 지리산에 계신 박남준 시인과 함께 시를 만들어보고 그렇게 만든 시로 직접 작곡해 노래도 만들고, 그 다음에 상괭이처럼 움직이며 상괭이 춤이라고 붙여서 놀이도 하고요, 3일씩 두 번 총 6일 동안 이렇게 고창에서 프로그램

을 만들어 진행했습니다.

다음 제가 다른 지역위원들한테 두 페이지씩 PPT로 구성해달라고 했습니다. 군산부터 보겠습니다. 군산은 비치코밍 (beachcombing)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속해서 해왔던 곳이에요. 코밍이 빗질하다는 뜻인데, 비치코밍은 해변을 빗질하듯이 쓰레기를 모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군산에서는 쓰레기를 모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징성 있고 메시지가 있는 좋은 걸 만들어보고자 비치코밍 이후에 서로 모여서 티타임도 하고, 작은 콘서트도 하고, 또 모아온 걸 쓰레기를 가지고 작은 굿즈(goods)를 만들어서 프리마켓도 하고, 여러 예술 활동들을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 김제인데요, 김제에는 몽상두꺼비 박찰성 활동가가 있습니다. 이 활동가는 자연적이고, 미가공된 일부러 돈이나 원가 에너지를 들이지 않은 것들을 모아서 조형물을 만드는데, 그 사이에 창의성, 모험, 자연,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친환경 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협동조합까지 구성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찰성 활동가는 곡성에 있는 예술섬에서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했는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뭔가를 만들고 남은 자투리 나무들을 가지고 지역의 청소년, 어린이들과 같이 다른,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활동을 했습니다. 에너지를 쓰고 버리는 게 이렇게 많은데, 버려지는 것들, 자투리들로 공간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자연 속의 재미와 우리 새로운 시각과 관점들을 참여한 친구들한테 전해주는 작업을 하신 건데, 저 동물 모양이 나무를 잘라 만든 게 아니라 자투리 나무들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솔방울 가슴기는 솔방울이 물을 머금은 습성을 활용한 건데, 물 먹은 솔방울을 방 안에 놓으면 자연스럽게 습기가 나와서 천연가습기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어린 친구들과 함께 실제 생활 속 모든 것들을 자연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무주는 일상에 스며드는 ESG라고, 아이엠무주라는 이선영 위원께서 활동하신 단체 사례입니다. 올해 쪽 활동했던 내용을 저희에게 소개해주셨습니다. 무주의 자연환경과 천연 천 베이스를 바탕으로 소품들을 만들었던 과정, 자수로 표현하고 전시하는 과정, 그리고 단순히 예술 작품을 만들어 전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안에서 제로웨이스트의 삶을 어떻게 표현해 볼까 궁리하며 친환경 세제도 만들고 장바구니도 만들고, 거기에 자수를 활용하고, 자투리 재료들을 활용해 일상에서 썼던 것들을 소개해주셨습니다. 마을 축제와 연계해서 사람들과 그 가치를 공유하고, 장날에 캠페인을 하면서 행복을 같이 나누는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창입니다. 양은정 선생님이 활동가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예술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은정 선생님은 생태 기후 위기를 인식하고 그것을 예술 활동으로 확장해 온 사례입니다. 특히 순창북중학교에서 했던 예술교육, 연극인데요, 지금 우리에게 닥친 기후위기를 어떻게 표현해 볼까 하는 것, 디카시라고 아주 쉽게 디지털로 사진을 찍고 거기에 삶의 이야기를 시인처럼 붙이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집중해 보는 거, 그리고 영상, 일종의 영화조, 그런데 긴 영화가 아니라 1분 남짓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직접 주인공이 되고 제작자가 되어 어떻게 하면 생태 기후 위기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본인도 시인으로 등단해 동시도 쓰시고 동화책도 내는 활동을 해 오고 계시데, 출판기념회도 하고, 화가로서 활동하며, 미술과 영상을 통해서 생태전환,

기후위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해왔던 것이고, 실제 섬진강 미술관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제로 다른 예술가들과 함께 전시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작은 학교 살리기 환경개선사업도 진행하셨는데, 그냥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것에서 나아가 생태 감성을 담아 진행을 했고요, 특히, 작은 학교들이 전체 공동체의 작은 인구로서가 아니라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공간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들이나 지역의 주민들까지 참여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했던 그런 프로젝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안입니다. 진안의 토종씨앗 살리기 활동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진안에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걸 문화 예술로 볼 수 있냐고 처음 의견을 주셨을 때, 우리가 입을 모아 음식 문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토종을 살리고, 그 토종이 밥상에 올라가는 게 과정, 그것을 되살리는 문화,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역할의 문화적 요소, 그리고 과거의 것이 현재 또 다른 의미로 전환되는 교차문화들이 결국 상차림에서의 우리 음식문화로서 당연히 문화예술로 연계 가능하다는 생각을 다 같이 공유했습니다. 진안 마령에서 적극적으로 토종씨앗 살리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심지 활성화 사업 내에서 아카이빙하는 것, 사라진 토종 씨앗들이 마을마다 곳곳처럼 이야기주머니로 엮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여러 권의 책으로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카이빙해서 결과를 얻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토종 씨앗은 결국 음식문화로, 앞으로 우리가 좋은 먹거리와 그런 좋은 먹거리를 되살리는 것 자체가 생태전환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과정입니다. 씨앗 수집하는 활동을 기록해서 3권의 기록집으로 만들었고, 단순 기록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실제 확산시키기 위해 확보한 씨앗을 나눔하고, 교육하고, 그 토종 씨앗들을 가지고 상차림을 어떻게 하는지, 밥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지금 이 지역 내에서는 과거에 씨앗이 사라지면서 사라졌던 이야기들이 씨앗이 복원되면서 그때 그 작물을 먹고 입고 같이 공유하고 나누던 이야기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문화예술과 닿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 ● 토론

### 군산 김춘학 위원

저희 모듬 발표와 관련해서 질문이나 의견을 편하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주 김동영 위원

순창은 프로젝트를 어디서 지원받아서 하셨나요?

### 순창 양은정 활동가

2022년 주제 중심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선정이 돼서 8차시로 수업을 했어요. 실질적인 교육은 두 달 만에 끝나는 일정이었습니다.

### 전주 김동영 위원

무주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요?

### 무주 이선영 위원

모두 1년 사업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문화관광재단의 지역문화예술 관련된 사업을 지원받아서 진행했고, 처음에는 ‘무주의 자연환경과 나’ 라는 주제로 무주에 살고 있는 여성분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했습니다. 내가 무주에 살고 있는데 그 속에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자수로 표현을 해보자고 시작했구요. 무주하면 자연환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주의 자연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고, 쓰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됐어요. 쓰레기가 없애는 것보다 잘 버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무주의 자연환경이 너무 좋은데, 흐르는 냇가의 다리에서 보면 다리 밑에 온갖 쓰레기들이 있어요.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발전해서 다음에는 제로웨이스트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고 만들어보자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친환경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로, 작은 행주나 수세미 같은 여자들이 주방에서 쓰는 것들, 선물로 줘도 버리지 않는 것들로 한번 실천을 해보자고 해서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전시를 진행했고, 마을 축제로 가져가 체험프로그램을 했어요. 소창으로 만든 스카프도 있고요, 소창은 그냥 기저귀천이거든요. 목화로 만든 천인데 기저귀로 쓰던 걸 가지고 스카프 만들기를 하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고 따뜻하고 또 손쉽고, 쓰다가 질리면 행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확장해 시장에 가서 홍보하고 나누고, 그러니까 줄이자가 아니라 분리배출을 좀 잘해서 이 자원들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했습니다.

### 전주 김동영 위원

정책적으로 문화관광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장르별 사업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목적별 사업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최근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해 문화예술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 자체적인 연구 모임을 가져 후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예산을 만들고 지원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경우에도 장르별, 예술단체별 지원사업에서 목적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봤습니다. 저희가 사실 3개 정도 주제를 정해서 모임을 했는데, 기후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저희가 한 지방사회나 인구감소나 관광 일자리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지역 문제를 어떻게 문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들을 지속시켜, 문화재단에서 향후 목적별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사업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문화재단이 문화예술의 장르적 지원을 넘어서서 지역문화진흥이라거나 더 높은 단계로 점프할 수 있는 고민들도 다음 모임에서 논의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군산 김춘학 위원

저희 모듬은 앞서 발표하신 것처럼 지원사업으로 진행한 사례도 있었고, 제가 화장으로 있는 군산시협동조합협의회 사례는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움직인 사례거든요. 사회적 가치 실현이나 공동체 회복을 위한 방향성을 꼭 지원받아서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그전에 우리의 시민 의식을 중심으로 다른 트랙에서 같이 끌어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지금은 겨울이라 추워서 못 하고, 한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8월에 한 번 했고요, 그 외에는 매달 한 번 마지막주 월요일 오전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결국은 회원들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스스로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각자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뮤지션이 공연을 무료로 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카페를 내어준 사장님이 음료를 또 서비스로 주시고, 그곳에 참여했던 분들이 만든 제로웨이스트 상품을 가지고 서로 팔기도 하고, 이런 작업이 조금 의미가 있지 않으나 싫어요. 이런 사례들을 광역재단, 기초재단 차원에서든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군산이나 고창은 바다를 끼고 있어서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는데, 기후, 생태, 이런 것들도 14개 시군 안에서도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지역의 환경적인 요인을 정확히 좀 분석하는 작업부터 시작된 후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후, 생태 관련 프로그램이 말씀하신 대로 목적별 지원사업으로 구축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 부안 이민호 위원

순창이고 무주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 꼭 이리이러한 부분들은 좀 보완되어야 한다든지, 각 지역에서 활동할 때 이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든지 그런 실질적인 조언이나, 사례들을 통해서 겪었던 문제점들까지 같이 제안을 해주시면 재단 측에서도 정책을 발굴하거나 계획수립을 할 때 도움이 될 것이고,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방 군산 사례를 얘기하셨을 때,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했던 것처럼 실제로 순창이라든지 무주 쪽에서 활동하실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순창 양은정 활동가

제가 한 수업은 연극 선생님이 주관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사례예요. 이게 강원도, 경기도에서도 했던 프로그램인데, 세계 시민 지속 발전 가능성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애들한테 알려주고, 그다음에 지식채널 같은 영상을 통해서 심각성을 애들한테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즉흥적으로 느낀 것을 표현하죠. 아까 피피티에는 결과만 담겼지만, 거기에서도 ‘나는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막 이런 것들을 느껴졌는데, 유행의 전환, 지속 발전 가능성 17가지 등을 보여주고 애들에게 주제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게끔 하는 것들을 계속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교육을 받았더라면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할 때 방법을 몰라서 헤매는 거죠. 주민자치회 나가보면 대부분 절차를 몰라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세계 시민이라는 인식변화나 같은 것들을 탄탄히 해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구요. 그러면 버리지도 않고 쓸데없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우리가 다시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치부나 어릴 때부터 기초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무주나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툴 작업, 예술 활동한 것들 보면 좋은 게 많잖아요. 이런 것을 하는 사회단체, 여성단체 같은 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좀 퍼져나가야 사회 전체에 다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아까 목적지원사업이라고 말씀하

셨는데, 주제 중심으로 재단에서 지원할 때도 이런 사업을 한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한 목표를 5개년 계획같이 재단에서 타이틀을 걸고 계속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활동가들이 같은 분야에서 계속 활동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바람이 불어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무주 이선영 위원

저희는 실제로 뭘 하자고 걱정해서 움직였다기보다 무주라고 하는 곳이 자연이 가장 우선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얘기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된 거고요. 예산을 지원받긴 했지만, 사실은 교육 활동으로 지원받은 것이고요. 마을 축제 또는 시장에 가거나 그리고 모둠별로 아침에 우리끼리 모여서 몇 시에 만나서 어디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모닝커피를 마시자 이렇게 해서 '주킹'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활동을 우리가 지속해 할 수 있는 것들로 계속 이어갔어요. 그리고 교육을 통해 재료비를 지원받으면 개인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나눔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캠페인 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자고 해서 제로웨이스트,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현수막도 광목으로 만들고, 또 유리병을 어떻게 씻어 버려야 되는지, 스티로폼 박스를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등을 안내하는 것들을 공용비용으로 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만날 수 있는 '꺼리'가 되어 지속해 활동하게 됐어요. 저는 지원사업도 그때그때 나름 새로운 주제를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이런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업의 지속성을 보고 좋은 사업들을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2021년도에 '자연 환경과 나', 올해에는 '제로웨이스트와 나'라는 것을 진행했는데, 내년이 되면 더 업그레이드 된 뭔가를 진행할 수 있을 거고, 그 모습이 '그럼 우리가 행주같은 상품으로 만들 수 있겠다.' 싶는데, 그렇게 나아가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관광과에다가 무주 관광상품을 먹는 것이나 열쇠고리 이런 거 말고 무주에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상품, 행주 이런 것으로 바꾸자고 제안해서 검토 중이에요. 행주는 버리지 않고, 가격도 비슷하거든요. 예산이 1천만 원이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줄지 말지 고민하고 있어서 제안한 상태인데,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 익산 권순표 위원

환경은 단시간 내에 한 번 집중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게 결국 문화예술로 잘 자리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어떻게 하고, 활동가들이 이것 계속해 어떻게 끌어갈지 모든 지역에서 다 고민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좌담회 전문

- **일시:** 2022년 11월 7일 14시
- **장소:** 책마을 해리
- **참석:** 김춘학, 김찬주, 홍욱진, 이선영, 양은정, 이대건

**김춘학** 군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 지금 다들 행사 시즌이어서 연락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군산시협동조합협의회를 발족해 지금 초대 회장으로 있는데, 저희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일로 다음 세대와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비치코밍을 하고 있어요. 이것 사례로 말씀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해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플로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일상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군산에서는 비치코밍(beachcombing)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비치코밍(beachcombing)은 비치(beach)와 코밍(combining). 해변에 있는 여러 쓰레기를 빗질하면서 모으고 후차적인 활동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런 모임을 해왔던 이유는, 우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해양 쓰레기가 심각하다고 본 거죠. 군산은 고군산 군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무인도와 유인도 다양한 섬들이 존재하고 있고, 군산시 핵심 관광 정책 방향에도 예술섬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걸로 드러나 있는 관광 지역은 일용근로하시는 선생님들이 청소를 계속하세요. 청소를 하는 곳은 걸보는 깨끗합니다. 고창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몇 걸을 뒤쪽으로 들어가 보면 엄청난 쓰레기가 마을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안쪽의 쓰레기를 조금 수거해 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이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으로 해결해보자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우리가 해양 쓰레기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대로 둘 수도 없다는 개념을 공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컨셉은 단순히 플로깅하듯이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 주워와서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고 가면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힘들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뭔가를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지역에 선유도 주민통합위원회라고 있어요. 어촌계별로 소송을 할 정도로 어촌계들 사이가 좋은 지역 찾기가 힘들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2천만 원짜리 사업을 했는데, 왜 여기는 안 주냐고 소송까지 해요. 관광객들이 왔을 때 오토바이 같은 거 대여하는 분들이 이쪽에서 손님을 먼저 낚아채 가면 반대쪽에서 집단 충돌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고창도 비슷하겠지만 섬마다 그러한 맥락들이 좀 있어요. 선유도는 1구, 2구, 3구 마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 곳의 이장님들이 처음으로 주민통합위원회라는 걸 결성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본인들끼리 하기에는 좀 그리고 누군가가 외부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협동조합협의회와 선유도 주민통합위원회가 손을 잡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 팀은 먼저, 쓰레기를 줍는 과정을 합니다. 팀원들이 가서 쓰레기를 한쪽에 모아놓으면, 주민통합위원회 사무국장님이 군산시 항만해양과에 연락합니다. 사진을 찍어 어느 위치에 쓰레기를 모아놨으니 가져가라고 하면, 시에서 와서 수거해가는데요. 이런 식의 협업을 하고요. 그러면 또 주민협의회 대표님이 고맙다고 본인이 운영하시는 바닷가 바로 앞에 커피숍에서 음료를 제공해주세요. 벽이 없는 커피숍인데, 거기서 우리가 같이 쓰레기를 주웠던 바다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관심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동안에 조그마한 콘서트도 준비합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 가수 한 분이 앰프 가져오셔서 잔잔하게 기타도 치면서 노래 공연을 해주십니다. 이 공연이 끝나는 과정 중에 제로웨이스트 상품 같은 것들을 한쪽에 진열하고 판매하는데, 그때그때 참여하신 분들이 상품을 소소하게 구매해 가세요. 예술 활동으로는 쓰레기를 주우면서 함께 주운 조개껍데기나 얇은 돌에다가 저희가 창작을 합니다. 주

저는 우리 바다. 다양한 그림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저희끼리 작은 꽃다발 투표를 합니다. 조그마한 풀잎들을 하나씩 꺾어서 하는데, 풀잎 하나가 한 표예요. 그래서 한쪽 공간에 쪽 깔아놓으면 마음에 드는 작품에 풀잎 하나를 내려놓습니다. 풀잎이 가장 많은 분에게는 저희가 준비한 제로웨이스트 상품을 선물로 드리고, 단체 사진을 찍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진행은 이렇게(사진) 했고요, 비치코밍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완벽주의자가 되세요. 갑자기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한다고 하면 모든 걸 다 수거해야 한다는 압박에 안 가려고 하시거든요. 30분이 지나서 1시간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러워요. 갑자기 땀도 막 펄펄 흘리시고, 그래서 비치코밍 진행 시간은 1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특히 한여름에는 40분을 넘지 않게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절대 완벽하게 치울 수가 없어요. 일주일 후에 이 현장을 다시 오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쓰레기들로 그 자리는 메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가아니라는 건데요. 이 모습(사진) 한 20분 정도 모은 거예요. 다른 사진들도 군데군데 다 모아놓거든요. 사진을 보면, 순식간에 포대가 다 채워져요.

활동을 하면서 점점 저희 협의회와 주민통합위원회 그리고 트립스캐너라고 여행사도 함께하는데요. 이 섬 출신 대표님이세요. 본인이 내려오실 때 외부에서 몇 분을 모시고 오셔서 쓰레기를 같이 치우게끔 해요. 그분들한테 ‘돈 내고 쓰레기 주우러 갑시다.’ 고 해서 서울이나 경기에서 오시는 분은 1인당 2만 원씩 내세요. 그걸로 저희가 포대도 사고, 물도 사고, 집게 같은 것들을 구매하는 거죠. 저희(협의회)회원들도 오시면은 회비로 참가비를 냅니다. 그냥 와서 내 힘만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일부분은 우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돈 내고 쓰레기 주웁시다.’ 라는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고요.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은 쓰레기가 똑같아요. 치울 때는 어느 정도 관찮아졌다 싶는데 다음에 가면 똑같아요. 그런데 안 치운다면 저희가 처음 본 상태 그대로 방치돼 있겠죠? 이곳 바다가 정말 예쁘는데 쓰레기가 너무 방치돼서 아쉽더라고요. 저희는 운영할 때 그 지점의 특징을 잡아서 해설도 합니다. 올해 8월 1일부터 첫째 주가 ‘제3회 섬의 날’ 이었어요. 원래 7~8월 한창 더울 때는 안 하기로 했는데,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우리 섬 주변을 치우자고 해 8월 1일에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진은 군산 이마트 임직원들이 나와서 같이 협업으로 했던 사례입니다. 이마트 신세계에서 전국에 바다를 낀 지역의 해양 정화 사업의 하나로 프로그램을 공모했고,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유익컴퍼니라는 곳에서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제주도, 부산 등에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군산 쪽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팀이 꾸준히 있어야 이 같은 중간 협업도 계속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소소하게는 학교 반 단위로도 연락이 와요. 부모님들이나 학부모회에서요. 저희가 아이들 자원봉사 점수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님이나 학교에서는 엄청난 매력이 있는 거죠. 단, 저희는 절대 태우러 가지 않습니다. 같은 군산이지만 군산에서 선유도 가는 데 40분 걸려요. 저희가 최근에는 이태원 참사 애도 차원에서 항상 하던 공연은 축소했어요. 그러면 참여자 수는 자연스럽게 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계속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는 진행한다는 의지로 이끌고 있어서 단체장 성격을 띤 분들 중심으로 소소하게 진행했습니다. 이런 저희 활동도 알릴 건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도자료 작성해 넘겨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건** 다음 김제 사례인데, 김찬주 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제 활동가가 자리에 참석하기 어려워서 김찬주 위

원께서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 준비해주셨습니다.

**김찬주** 지난 회의 때 저희 활동가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못 해서, 오늘은 그분의 활동 사례에 대해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목은 환경과 생태에 대한 문화예술의 대응 사례이고요, 일단 활동가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박철성 님이라고 김제 내에 있는 몽상두꺼비협동조합 대표로 계십니다. 군산처럼 바닷가에 있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가공품 같은 거, 공장이라든지 공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만들다 만 자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재들을 재활용하는 곳들도 있지만, 그냥 밖에서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자재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박철성 대표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가장 먼저 아이들 장난감부터 한번 만들어보자고 그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뭇가지 같은 것을 활용해서 사슴뿔처럼 만들어서 사자 모형 같은 걸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아무래도 활동가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게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김제 내에서 이런 활동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계셔서 김제에서 몽상두꺼비협동조합을 결성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이를 전에 몽상두꺼비협동조합에서 모험 놀이터라고 아이들이 좀 친환경적으로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서 개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 오늘 못 오셔서 제가 대신 설명해드리고 있고요. 박철성 대표님은 인간문화재 대목장에게 7년에서 8년 정도 기능 전수를 받았고, 원래도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는데요. 원래는 좀 소소하고, 작은 거 위주가 아니고 집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작업을 하시다가 내가 하는 일이지만 어렸을 때 생각했던 뜻과 좀 차이가 있다. 나는 뭔가 더 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인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집을 짓는 건축은 쓰레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뜻이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느껴서 건축 관련 활동을 멈추고 현재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김제뿐만 아니라 전주, 곡성, 고산 등 전라도 전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세요. 보통 아이들 장난감뿐만 아니라 책마을해리에도 저기 뒤쪽에 트리하우스가 있는데, 트리하우스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친환경 놀이터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계십니다. 활동사진을 보면 이 사진은 이제 대표님 자녀들인데요. 저희가 쉽게 보는 솔방울 같은 것으로 지금 자연 솔방울 가슴기를 만들었는데요. 솔방울이 물을 닿게 되면 물을 머금다가 내뿜게 돼요. 이처럼 뭔가 친환경적으로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없을까 해서 시작하게 된 거고요. 친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요새 아이들이 책보다는 휴대폰을 많이 하면서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데, 본인의 아이들부터 바꿔보자 해서 그렇게 시작하셨다고 해요.

이 사진은 트리하우스를 만든 건데, 보통 트리하우스를 생각하면 나무 자재 같은 것들을 톱으로 썰고 만드는 걸로 많이 생각하는데, 대표님께서서는 나뭇가지라든지 아니면 무너진 나무들을 그냥 그대로 사용해서 만들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해당 나뭇가지로 ‘나는 이거를 뼈대로 써야겠다. 난 이거를 받침으로 써야겠다.’ 이런 걸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이런 체험을 진행할 때, ‘이거는 여기다 놓으시면 돼요.’ 이런 식의 설명을 해주지 않고 진행한다고 합니다. 설명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본인의 트리하우스를 만들어보도록 하니까 가족 단위로 왔을 때 아이들이나 부모님들도 ‘이거는 어디가 좋을까? 이 형태는 기둥이나 뼈대가 좀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스스로 생각해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나뭇가지로 소형 트리하우스를 만든 거예요. 집 안에 설치해 놓을 수도 있는데, 체험학습도 가족 단위 아니면 학교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찮아 보일 수도 있는 것들이지만 그것들을 이용해서 아이들 스스로가 직접 누군가의 도움 없이 만들어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모든 트리하우스를 이런 식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어디 섬에서 학교에서 초청받아 8주차로 학부모들과 함께 7가정이 모여 너만의 트리하우스 만들기를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통 트리하우스를 만들면 그냥 만들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등기부 등본까지 발급받아서 ‘우리가 직접 만든 진짜 집이다.’ 라고 하고 있고, 이번 주에는 서로의 트리하우스에서 접들이하는 콘텐츠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보통 쓰레기를 재활용했다면 플라스틱이나 천 같은 거 많이 떠오르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나뭇가지라든지 나뭇잎이라든지 자연 그대로의 것도 활용할 수 있어서 그런 활동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박철성 대표님의 활동 목표는 이런 활동이 점차 많이 진행돼서 김제, 전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협업은 안 하더라도 지역마다 이런 활동들이 있다는 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면 조금 더 친환경적이라든지 쓰레기를 덜 만드는 방향으로 삶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건** 잠깐 뒤쪽 유리 상자 안을 보시면 트리하우스 하나 모형이 있죠, 저게 지금 몽상두꺼비 멤버 중에 한 분이 가져온 건데요, 김제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아마 섬이라고 한 곳이 곡성의 제월섬 아닌가 싶습니다. 예술아트페스티벌이 지난주까지 했거든요 얼마 전에 새롭게 참여하셔서 이렇게 멋지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진안입니다.

**홍욱진** ‘진안군 마령면의 토종활용사례’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안군 마령면이라는 곳에서 토종활동가로 활동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사무장을 하고 계셨어요, 이분이 ‘토종씨드림’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같은 지역의 사업과 토종을 연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토종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토종이 뭐가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실 수 있어요, 토종의 가장 큰 장점이 기후 적응성 종자로 병충해와 날씨 변화를 기억하고 스스로 진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 작물이라고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끈질긴 자생력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콩 같은 것들은 몇천 년을 이어온 유전자 형질이 남아 있는 거예요, 물론 다양한 야생 콩 중에서 교잡시켜 만들어낸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걸 계속 유지해 씨앗을 받고, 좋은 씨앗을 골라서 또 그다음 해에 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종자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종자 산업이라고 해서 나라마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열티를 주지 않고, 우리가 먹을거리를 생산해낼 수 있는 종자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토종은 퇴비나 영양제 이런 거를 많이 안 하고 자연 상태로 자랄 수 있어서 맛이 좋고, 영양학적으로 더 좋다는 것이고, 똑같은 콩이라고 하더라도 지역별로 특징이 있어서 지역의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배추나 무, 고추도 다 그래요,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과거에는 배고픈 사람이 많아 식량 증대를 이유로 농사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지금은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좀 드물어요, 그래서 배불리 먹는 것보다 우리 몸에 좋은 것을 먹는 것이고, 그래야 의료보험 등으로 나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마령면은 2017년부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시작됐는데 2018년에 사무장님께서 제안해서 ‘토종씨드림’ 을 위한 씨앗 조사를 시작했어요, ‘토종씨드림’ 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토종 씨앗에 대한 자료를 많이 모았는데, 2018년에 마령면에서 수집했던 결과물이 총 146점이 나왔다고 해요, 예를 들어 어머니의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어머니가 결혼 전에 인근 장수군 산서면에 살았어요, 결혼할 때 가지고 왔던 씨앗을 자식들이 계속 심어왔는데, 그게 바로 ‘산서무’ 였어요, 마령면의 씨앗 조사가 끝나고, 여러 종자 중에서도 부엉다리콩, 대가리파, 논감자라고 하는 3가지를 주요하게 봤어요, 부

엉다리콩은 우리가 먹는 백태의 일종이에요, 알이 좀 더 굵으면서 훨씬 더 맛있다고 해요.

작년에는 지역에서 결혼해 몇십 년간 사신 분이 시어머니가 지어먹던 것을 며느리도 계속 농사지어 먹고 계신다 해서 취재해 기사화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지역에서 부엉다리콩을 농사짓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신기하게, 그리고 진안논감자는 바깥은 보라색이고 안에는 사진처럼 약간 미색인데, 눈이 이렇게 쑥 들어가 있어요, 패스트푸드 같은 게 발전하면서 눈이 없는 감자를 개발하려고 노력해 많이 퍼졌는데, 이것은 그냥 눈이 살아있는 토종의 느낌이 있는 거죠, 논감자는 포슬포슬한 감자는 아니에요, 쫄쫄한 감자인데, 껍질이 되게 얇아서 찌서 먹으면 자체적으로 살짝 짠맛이 나서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대가리파는 뿌리 쪽이 큼직하다고 해서 대가리 파라고 해요.

그리고 토종 모임을 하던 분들이 전에도 토종 씨앗 모임을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약간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신 거죠, 여기 사진에 손 모네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지난해 토종 벼를 보존하고 넓혀보기 위해서 직접 심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연농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배추도 비닐 안 치고 풀 뽑아가면서 농사짓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확보한 씨앗을 자기들만 갖는 게 아니라 퍼뜨리자, 나눠주자 해서 조그맣게 봉지에 담아 마령 월장(月場)에서 토종씨앗 모종을 나눠드리고, 씨앗도 나눠드리고 있어요, 또, 그걸 활용한 음식 같은 것도 조금씩은 선보이기 시작했어요, 눈으로 보여드리고 맛도 보게 한 거죠.

그리고 진안군 교육지원청에서 토종 씨앗으로 학교 텃밭을 만들기도 했었어요, 학교마다 있는 조그만 텃밭에 우리 아이들이 토종을 가지고 키워보게 하자 해서 한 거죠, 모든 학교가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자율적으로 학교 여건대로 참여했어요, 토종씨앗 모종을 받아서 학교 자체적으로 텃밭을 꾸린 학교도 있고, 아예 수업으로 진행한 학교도 있었어요, 한 학기 내내 아니면 1년 내내 수업하기도 했는데, 배추를 심어서 김장까지 해보는 학교들도 있었어요.

또 마령에서 먼 단위로 토종 씨앗을 수집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씨앗수집 기록집을 내고, 다음엔 어머님들의 레시피가 들어가 있는 책도 냈어요, 첫 번째 책은 씨앗과 크기가 어떤지, 종류를 나눠 구분해 이리이러하게 씨앗을 찾았다고 책을 묶어놓은 거죠, 두 번째 책은 고수 겉절이, 곰보배추 부침개, 뿌리갓 겉절이 등 생소한 말이지만, 어머님들이 지금까지 농사지어 먹는 것들, 해 먹었던 것들의 레시피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책은 어머님들의 옛날 사진도 모으고, 어머님들이 직접 음식을 만드는 사진과 레시피까지 다 묶었어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지역마다 커피나 베이킹이 어디나 빠지지 않는데, 마령은 이왕이면 토종 식재료로 해보자고 해서 얇은뱅이밀로 제과나 빵 만드는 것을 했죠, 이 사무장님께서 또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이거 심어보시면 어떨까요, 당신도 아시는 거 있고 내가 아는 것도 있으니까 서로 정보교환 합시다.’ 이런 식으로 확장한 거죠, 이걸 토종 얇은뱅이밀 밭이라고요, 이걸 남도참밀 밭이라고 해요, 생김이 조금 다른데 어쩌다 두 가지가 다 보여서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남도참밀은 되게 맛있다고 평을 받고 있는데, 지역에 어떤 분이 지난해에 500평을 심어 그중에 한 3/5를 토종씨드림 회원들에게 씨앗으로 넘겼다고 해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마령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마령활력센터가 작년에 완공되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우리밀 베이킹 제품들을 맛보여드리고 판매하고 있어요, 밀가루는 우리밀을 사용하고, 대가리파로 대파스콘을 만들고, 모닝빵에는 토종씨앗으로 만든 깨를 넣고, 우리나라 토종팔로로 소를 만들어 팥빵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활동을 하는 거죠, 또, 지역 내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 활동도 여기 센터에서 만들어 나눠드리기도 하고, 봄에는 논감자하고 토종 얇은뱅이밀을 가지고 수제비를 떠서 나눔을 했어요, 약

200명 주민들이 오셨는데, 그 어르신들이 ‘옛날 생각난다’, ‘옛날 맛 그대로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이 사진은 부엉다리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서 나눔을 한 거예요. 또 역량 강화 사업으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하다 보니까 토종 재료를 활용한 핑거 푸드, 케이크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도 하는 거죠. 문화행사 주최하는 단체에서 먹거리 체험을 제안해서 토종먹거리 레시피를 만들어 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 사진은 오미자 청인데, 토종 박하를 얼음에다가 얼렸대요. 이 얼음을 음료에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보기에도 좋고 맛도 있게끔 계속 연구하시는 거죠.

이번에 김치 수제비로 나눔이 또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어머님들이 참여하신대요. 내가 콩을 이만큼 지었다며 가져오신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서 팔아 보자 해서 내일모레 두부도 판매하게 됐어요. 청국장도 만들고 두부도 만들고 사라졌던 논감자를 진안 오일장에서 할머니들이 팔고 계시고, 부엉다리콩은 ‘이제 나도 좀 쥐’ 해서 마령면 내에서도 꽤 많이 늘었죠. 작년에 부엉다리콩을 재배한 어머님을 취재해 기사를 냈는데, KBS 전주에서 소개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걸 보고 전주에서, 진안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분이 전화가 와 ‘콩 좀 살 수 있느냐, 씨앗 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토종 얇은뱅이 밀가루를 가지고 제과나 빵을 만들어서 파는 곳이 다른 센터에도 생겼어요. 토종 밀도 늘었고요.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사무장님께 계속 두부 가공공장을 내시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토종 종자가 좋은 건 알지만 내가 먹어봐야 알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공하시는 분도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알리는 작업을 하실 계획이에요.

**이대건** 이제 토종 음식, 토종 먹거리와 어떻게 예술로 연결시킬까인데, 우리 음식문화고, 이렇게 푸드아트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특별한 활동들이 문화나 예술적인 어떤 흐름으로 이어가는 바탕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안 사례를 얘기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선영\_안녕하세요. 무주에서 온 이선영입니다. 저희는 거창하지 않고, 그냥 아줌마들끼리 사부작사부작 시작한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무주로 간 게 2016년이었던 거예요. 2017년에 저희 집 뒤에 마당에서 마켓을 하게 됐어요. 이 마켓은 무주에 와서 보니까 지역에서 배우는 것들이 많은데, 수공예 제품도 그냥 장롱에 보관만 해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전시 겸 판매를 해보자고 벼룩시장을 진행했어요. 안 쓰는 물건도 다 가져오고 그러면서 생각한 게 이런 거를 담아주기 위해 비닐봉지를 사야 하는지, 쇼핑백을 가져와야 하는지 고민했는데, 현수막들이 많잖아요. 그 현수막을 재봉틀로 쇼핑백을 만들자고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주제를 보고 우리가 언제부터 이걸 했을까 생각하니까 이때부터였습니다. 그 이후에 2021년부터 계속 현수막으로 쇼핑백을 만들면서 계속 마켓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농산물 매장에서 일반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고 쇼핑백을 주민들한테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서 지원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때 주제가 ‘무주의 자연환경과 나’ 였습니다. 제가 무주를 간 이유도 자연환경 때문이었어요. 무주 생각하면 ‘깨끗하다. 공기가 너무 깨끗하다. 자연환경이 너무 좋다’ 라는 거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며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수를 놓고 이야기 나누며 전시회를 했습니다. 가을에 우리 전시회를 한번 해보자, 우리 만든 거를 진열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마침 마을에 계신 분들이 우리 마을을 기록한 사진들이 있는데 이 사진들과 같이하면 어떠냐고 그래서 좋다고, 또, 한쪽에서는 동네 사람들

이 연주하고 노래하는 음악회를 같이 하면 어떠냐길래, 너무 좋다. 그렇게 마당 한 편에서는 저희가 만든 작품을 전시했어요. 이 사진은 예선이 없어서 천에다가 바느질해서 붙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거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안 버리고, 그리고 이 사진은 사진을 전시한 건데, 이렇게 담벼락 올라가는 곳에 했어요. 그리고 음악회도 했습니다.

그 이후, 올해는 다음 주제로 ‘자연환경과 나’ 에서 조금 더 넓혀보려고 해서 제로웨이스트를 시작했고, 고민하게 된 거예요. 제가 무주 가서 충격받은 게 자연환경은 좋은데, 하천에 물 흐르는 것을 보다 다리 밑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온갖 쓰레기들, 배추, 나물들이 다 다리 밑에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를 안 버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분리수거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골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한 인지가 없어요. 그냥 내가 늘 버리던 곳이니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느질하면서 분리수거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안 나오게, 자연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데 저희가 다 아줌마잖아요. 가까이에서 시작했죠. 수세미에서 미세플라스틱 나오는 거 아시죠? 이걸 삼베 실이에요. 삼베실로 수세미를 만들었어요. 혹시 소창이라고 아세요? 목화솜에서 실을 뽑아 만든 천이에요. 옛날 기저귀 천, 저희 아이들 기저귀 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라 삶아서 썼던 기억이 있어요. 이 소창을 가지고 행주를 만들었는데, 그냥 행주를 만들지 말고 수를 좀 예쁘게 놔보자. 그래서 이렇게 수를 놓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가져왔지만 만들어서 나눔을 하자고 해서 수세미랑 수 놓은 수건이랑, 수 놓지 않은 행주랑 이런 것들을 ‘여러 사람한테 알려보자, 우리가 환경을 지키고, 지구를 지키는 일이 큰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서요. 그런데, 제가 카페를 운영 중인데, 가장 큰 고민이 플라스틱을 안 쓰는 거예요. 플라스틱 쓰면 죄짓는 기분이라서 고민하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합약해 친환경 컵을 쓰고 커피 찌꺼기로 만든 빨대를 사용해요.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그래서 이때 저희가 남은 천 가지고 가방도 만들고, 뜨개질해서 수세미도 만들고, 만든 것들로 전시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든 걸 또 전시한다고 하니까 음악하시는 분들이 전시할 때 음악 같이 하자고 해서 좋다고 함께 하자 했죠. 그런데, 저녁 시간에 진행할 건데, 저녁은 어떻게 먹지?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우리 음식 같이 해와요, 한 사람이 하나씩.’ 그래서 그렇게 뷔페를 차렸어요. 오시는 손님들이 음식을 드실 때 숟가락, 젓가락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젓가락은 나무젓가락을 드렸는데, 숟가락이 문제였어요.

감자스프를 끓여 숟가락이 필요했거든요. 고민하는데, 옆에서 어떤 대표님이 가지고 오라고 해라, 좋은 생각이다 그랬다가 욕 먹고, 결국은 집에 있는 숟가락 가져가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희가 이런 활동들을 놓이처럼 하니까 재미있고 의미 전달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는 손님들, 잘 참여해 주시는 분들한테 선물도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마을 축제도 진행했어요. 시골은 마을축제 많이 하죠. 그런데 마을 축제가 어르신들만 계셔서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우리가 젊잖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자,’ 해서 마을에 들어갔고, 체험 진행을 도와달라고 해서 체험프로그램을 했어요. 소창을 가지고 친환경 스탬프를 찍어서 목에 두르니까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따뜻해요. 그리고 스카프로 사용하다 싫증 나면 행주로 쓸 수 있어요. 이게 쓰다가 해지면 나중에 그냥 태워버리면 자연으로 돌아가요. 쓰레기가 안 나와요. 이렇게 체험을 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어르신들한테는 추억도 드리고, 우리가 그냥 별거 아닌 천으로 이렇게 예쁜 스카프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거. 2가지를 얻었어요. 그리고 또 마을 축제에 사회단체들 아니면 동아리들이 매칭되면 좋겠어요. 그럼 마을 축제나 행사할 때 2~3명만 들

어가서 도와줘도 훨씬 더 수월하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이걸 가지고 워크숍을 진행하려고요. 이제는 진짜 우리끼리 아니라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한 사람이 열 걸음 걷는 것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큰 걸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만 하지 말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활동을 어떻게 할지를 좀 정해보자고 해서 워크숍을 하려고요. 아까 쓰레기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어떤 게 재활용이고, 어떤 게 일반 쓰레기인지, 이걸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같이 논의를 해보자 해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맨날 왔다 갔다 해요. 아까도 종이컵 먹으면서 이러면 안되는데, 그리고, 내 태도를 마다 맨날 새로그침 하면서 늘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건** 마을 축제에 결합했던 것을 말씀하실 때 ‘젊은 우리’ 라고 표현하셔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젊은 우리. 지금 여기에 그럼 이제 후반부로 가고 있는데요. 순창에 활동가 선생님 잠깐 좀 양선생님.

양은정\_ 자료를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순창에서 태어났고, 48세고요, 결혼해서 다시 순창에 와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디자인학과를 나왔는데 대학원은 문예창작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햇빛세탁소’ 를 2020년에 발표해 문학나눔 2차에 선정이 돼서 2천부를 찍게 됐습니다. 섬진강 장구목에서 항까지 약 27km 라인을 따라 섬진강 미술관도 있고, 출렁다리도 있고, 여러 가지 곳곳에 하늘길도 있는데, 저는 섬진강 일대를 주 무대로 화가 겸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예술인 마을에서 2인전을 11월 1일부터 진행했는데, 저는 항아리 마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발효의 아름다운 세계를 주제로 정해서 작품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여기 여섯 작품은 항아리가 이렇게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담아서, 여기는 달빛, 여기는 섬진강 물빛, 여기는 바람, 여기는 노을빛, 여기는 쪽빛 하늘, 여기는 별빛을 품는다고 해서 작업을 했어요. 이어서 자료는 적성초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인데, 적성초가 11명이거든요. 심각한 소멸 위기의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단순히 자연이나 기후변화에만 치중하진 않았고, 학교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마을이 사라지는 거고, 애들이 장성했는데 우리 마을이 없어지면 너무 슬플 것 같아서 활동을 했습니다. 제 아이도 2학년, 6살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창군의 장수연구소에서 하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있어서 공모해서 학교를 예술로 변화시켜서 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했어요. 저는 마을 미술을 했었고요. 저번에는 화가들을 데리고 전문가들과 하면서, 조형물도 하고 문학도 하고, 영상 디카시도 하고, 애들이랑 시집도 내고 그랬어요. 올해는 이 책이 나왔어요. 나팔꽃, 적성초하고, 복흥중하고, 성인까지 연계해서. 섬진강 예술학교라고 해서 생태를 노래하고 낭송하고 생태를 그려보는 활동들을 전개했습니다. 이거는 3일에 디카시 출판 기념회를 같이 했고요. 그리고 영상 시집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상영〉

이 자료는 적성 초등학교의 모습인데요. 저희는 미술 파트에 영상 작가님이 있으셔서 결과물을 낼 때 반드시 이렇게 영상 결과물을 내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코너 옆에 있어 벽면은 화가님들 모시고 작업한 것이고, 옆에 파출소가 있는데 벽면 같은 경우에는 체계산과 마티스의 춤을 넣어서 약간의 시각적 충격을 주기 위해서 벽면을 꾸며봤어요. 울타리도 장식을 했고, 저희가 예술로 탐구생활 프로그램에 연극, 문예, 영상 선생님이 세 파트너가 선정돼서 이 수업을 들어갔어요. 애들한테 세계 시민이 뭔지 인식시켜주는 교육을 많이 했거든요.

여섯 차례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충격을 주고 그다음에 현실적인 점검을 하는 식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영상상영〉 아이들에게 순차적으로 세계 시민, 인권 UN에서 정한 17가지를 알려주고, 애들이 거기서 필요한 것들, 그다음에 지속 가능 발

전성에 대해서 목록을 해서 인식하도록 공부했고, 이걸 통해서 애들이 ‘나는 어떤 걸 할까’ 생각하고 자발적인 행동을 하게끔 하는 수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수업하는 과정을 영상 작가 선생님이 아카이빙해서 정리하고 있고요. 17가지 중에서 아이들마다 중요시하는 게 다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빈곤의 중요성에서부터 시작해 점차 폭넓게 기후변화로 심화하는데, 탄소 발자국과 관련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며 구체화하는 단계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루 동안 내가 만든 탄소 발자국이 얼마나 되는지, 직접적으로 나는 내가 먹는 것이 얼마만큼의 쓰레기를 남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디카시를 제작하고, 디카시로 만든 것들을 스토리텔링해서 아이들이 즉흥극을 만들어보기도 하고, 연극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을 모둠별로 스토리를 짜고 발표하도록 활동하거든요. 중학생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브레인스토밍 해가지고 바로바로 나오더라고요. 아까 디카시 같은 경우도 딱 던져주면 바로 나오는 식으로 돼 가지고, 수업은 오히려 사회공헌 프로젝트 만들자 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해보니까 그 자리에서 애들이 스토리를 짜는 장면이에요. 이런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이대건** 마지막 고창인데요. 올해 고창에서는 생태예술제 프로젝트를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고창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책마을해리에서 진행했습니다. 생태예술제에서는 고창 앞바다에 살고 있는 상괭이 모양을 크게 따서 비치코밍을 중심으로 진행했고, 두 번으로 나눠서 2박 3일, 2박 3일씩 전라북도 초4-중3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신나는 털기부터 시작해서 명상, 서로 눈 바라보기도 하고, 바닷가에 있는 유리알로 만든 그림책이 있는데요. 그 그림책 원화 전시와 실제 유리알로 표현해보는 거, 사진을 찍어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별도 만들고, 운동한 배우가 친구들이 직접 개인이 기록해 보는 영상작업에 대해 수업도 했습니다. 영상 찍고 편집하는 거. 지금 이제 비치코밍해서 바닷가에서 활동할 때 사전 준비 워크숍 모습인데, 젊은 예술가들이 함께 역할을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비치코밍이 2017년에 부표를 가지고 거기에 색칠하고 전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했는데, 고창은 바다가 가까이 있어, 우리 토종 돌고래가 상괭이가 사채로 떠밀리는 걸 자주 발견했어요. 저희가 2012년에 초에 이주해 10년 전부터 바다 생태의 걱정스러운 모습을 많이 봐와서 일찍부터 생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책으로 여러 번 출간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두 가지 섹션으로 진행했는데, 첫 번째 섹션은 워터버닝이에요. 원가를 만들어놓고 난 뒤에 쓰레기가 나오면 뒤에 물이 들어와서 싹 싹고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바꾸는, 그럼 이제 물로 다 버린다는 뜻으로 워터버닝을 했습니다. 열심히 삽질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끝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삽질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팽개치고 그냥 가버리죠? 이제 다시 와서 주어서 빼냈는데, 저 쓰레기들을 다 어딘가에서 주운 건데, 아까 김춘학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다 치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늘 가니까 쓰레기가 뭐 있는지 알아요. 보통 사람들이 와서 비치코밍 한다고 그러면 쓰레기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곳들에는 있습니다. 약간 접경지역. 이쪽 면과 이쪽 면의 접경에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주어진 부표 가지고 색칠을 하는데, 이번 주제는 상괭이였어요. 상괭이 표정을 한번 그려보고 해서 이렇게 결과를 만들었고, 이거는 나뭇잎 위에 비닐을 왜 이렇게 나뭇잎을 상괭이처럼 물고기 모양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햇빛에 두면 그게 고스란히 내려앉아요. 그 나뭇잎에 그런 첫 번째 시즌 끝나고 두 번째 시즌에 판화 작은 상괭이를 다 그리고 찍고 해서 큰 상괭이를 모양을 만들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림책 중에 으뜸 해움이라는 그림책이 있는데 작은 물고기들이 큰 물고기한테 맨날 쫓기는데 이 작은 물고기들끼리 큰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지고 이렇게 대항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뜻으로 작은 상갱이들이 모여서 큰 상갱이가 돼서 지금 이 뭔가 위기 상황을 헤쳐 가보자 그런 의미로 저마다 자기들의 상갱이를 지금 하나로 파서 그리고 여기 지금 전시하고 있는데 철사로 만든 큰 상갱이 모양이에요. 제가 먼저봐라 저 되게 차갑거든요. 이 차가운 데서 온기를 느껴봐라 그랬는데 당연히 느낄 리가 없죠. 그리고 날이 두 번째 시즌은 날이 좋지 않았어요. 비도 엄청 왔는데 바닷가에 가서 같이 맨발로 명상하고 이렇게 트랙에 타고 있는 불법 행위를 막 보여주면 안돼요. 두 번째 시즌에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건축가 선생님과 함께 우리가 살고 싶은 집인데 무리의 집 뭐 이런 거 굉장히 같이 스케치를 하고 그걸 일일이 다 이렇게 하면 현실이 가능한 주거가 되겠다는 걸 지금 스케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글씨 마침 그때 10월 9일 한글날이 있어서 글씨 축제를 했고, 시인과 함께 시 써보는 저희가 2015년부터 시인 학교를 몇 년 했거든요. 그러면서 시집을 한 번씩 만들었는데 그런 전통이 쪽 와서 저기 지리산에 있는 박남준 시인이 와서, 저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시인학교에 왔던 친구가 중학교 3학년인가 돼서 지금 다시 또 온 여기는 이제 가수가 아까 썼던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그래서 이제 시를 짓고 그걸 노래 거기에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먹고 치우고, 아까 부표 마무리하고 있는 장면이고 애들이 엄마 아빠 술 드시는 거 봐가지고 자꾸 막 이렇게 흔들고 자기가 그린 이 나뭇잎 상갱이의 그 상갱이가 어떤 상갱이인지 어디 사는지 이름이 뭔지 그리고 가족 관계는 어떤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지금 서로 인터뷰하는 거예요. 저희가 상갱이 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사진설명〉

**이대건** 쉬지 않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뭔가 조금 걱정이 된다가나 내년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올해 이렇게 하고 있나라든지 그런 서로 이렇게 조언하거나 북돋아 줄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김춘학 대표님부터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김춘학**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서 고민이 들었던 지점이 영리성과 비영리성의 구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인데,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단순 활동가의 활동 모습을 조명한다면 이런 활동가는 수없이 많죠, 지역에. 그런데 그걸 기본적으로 영리성을 배제하고 비영리 단체성을 할 것인지, 어떤 지점으로 나뉘야 할지 전반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체로 비영리성보다는 조금씩은 영리성을 담보하고 있는 발표가 많아서 그거에 대한 접점을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창의 사례가 일종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 다 들어가 있다고 봐요. 저희가 발표했던 교육적인 측면과 모든 결과물이 하나하나 다. 비치코밍이나 나무를 중심으로 한 거나 어느 하나 빠져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발표를 고창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의 사례를 조금씩 소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김찬주** 다른 지역에서의 활동하는 사례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도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던 활동이 전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구요. 아까 군산에서 말씀하신 비치코밍에 대해서 얘기해주신 게 인상적이었는데, 이거는 자원봉사 성격을 많이 띠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그냥 도와주는, 이걸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고 있다는 게 조금 더 인상 깊었습니다.

**홍욱진** 저는 지역마다 저도 모르던 활동들도 보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았어요. 한 가지만 좋았다기보다 골고루 다양하게 볼 수 있어서 유익했었고요.

**이선영** 이런 활동들이 지속 가능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해오신 고창의 사례가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시작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단체는 약간 ‘놀이’ 예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하면 그냥 같이 약간 재미있게 놀고 이라는 거라. 사실상 이게 구체화해 움직이는 것들은 마을 분들이 환경지킴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말에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제가 이런 활동을 하니까 ‘우리 같이 해보면 어때요’ 라고 제안을 해서 ‘그럼 우리 워크숍 비슷하게 한번 모아볼까요?’ 라고 해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지금 사례를 들으면서 우리도 앞으로 저렇게 가면 되겠구나라고 오늘 배우러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자리였어요. 멀지만 정말 많은 걸 배우고 가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지속가능하게 하고 계시니까 고창 사례를 중심으로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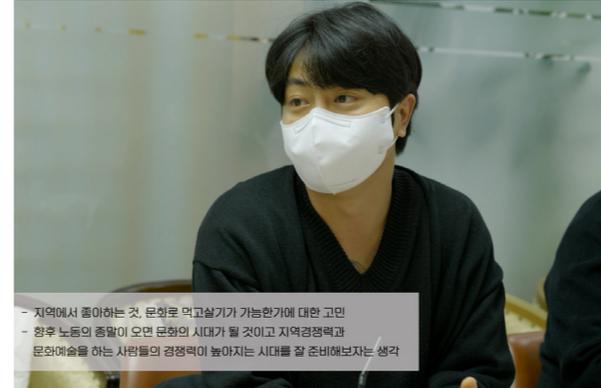
**양은정** 생태예술제 속에 저희 활동을 넣으면 똑같은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따로따로가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성에 대해서 우리 애들이 했던 비디오나 영상으로 인식 교육을 한 다음에 확장해나가는 것들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캠프 형식으로 나가는 것도 되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너무 또 심각하게 나가도 애들이 좀 재미없어하는 것 같아요. 디카시 같은 것도 되게 좋거든요. 요즘 애들이 휴대폰을 많이 갖고 다니기 때문에 순간순간 촬영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을 자꾸 해주면 좋은 것 같습니다.

**홍욱진** 조금 첨언해도 될까요. 좋은 사례들을 많이 알게 되는데요. 이런 게 그냥 이렇게 발표로 끝나지 않고 좀 적극적인 정책으로 좀 반영이 된다면 좋겠어요. 예술체험 이런 것들이 그동안 나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우리 다 같이’ 를 위한 그런 느낌으로 오늘 들은 것만 해도 방법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또 이런 방법들이 아이들에게나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게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대건**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안의 도초도라는 데서 그림책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마침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곳이 전라남도 생태환경교육원이었어요. 섬생태연구소 소장님이랑 잠깐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그분은 정말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계셨습니다. 지금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이미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정말 위험하다는 이 상황을 인식해야 된다고 걱정적으로 토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생태 혹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위들이 그냥 뻑뻑한, 무겁게가 아니라 예술 활동으로서 재미있고 또 신나고, 그렇지만 그 안에 어떤 메시지를 충분히 가지고 참여자들도 인식하고, 그 참여자들의 인식한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그래서 오히려

청소년들 혹은 청년들이 스스로 메시지를 만들어가면 그 메시지가 정치권 혹은 지금 정책을 위반한 세대들에게 큰 자극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 생태 주제를 굉장히 사소한 준비 단계를 거쳐서 주변의 생태 위기에 대해 어떻게 해볼까 하다 지금 이런 단계까지 좀 갖춰지게 되었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겠죠. 지금 김춘학 대표님이 하고 계신 것들이 해안 중심이라고 하면, 내륙 중심으로 아까 섬진강의 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내륙의 습지랄지 그런 것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들이 예술적인, 문학적인 표현으로 드러나고 그 자체의 메시지가 되는. 제가 캠프에서 친구들과 같이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저희가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체크인을 해요. 그때 '평소에 생태 위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활동을 해왔나요?' 하고 물으면 몇몇 친구들이 '못 했다. 좀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런 답변이 많았습니다.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생태예술제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활동을 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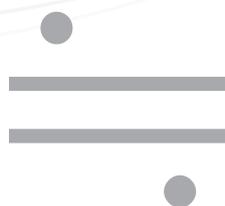
저희가 예술제 전체를 책으로 만드는데, 이 책에 이 친구들이 이야기가 다 들어가는데, 이 책 한 권이 어찌면 지구 혹은 인류 멸망의 어떤 상황을 타개하는 정말 핵심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을 하면서 이렇게 활동했던 시간과 기억, 경험이, 또 그것이 출판으로 이어지고 책으로 이어져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정말 중요한 키(key)가 되어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좀 깨우치는 그 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서로 발표를 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이어지고, 이 자리가 정책협의회이니까 전라북도의 문화예술교육 특히 교육, 문화예술 활동 이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먼 곳까지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주제  
관광산업에 대한 지역 활동가들의 인식과 대응  
1모둠 참여자  
권순표(익산), 전별(원주), 이민호(부안), 이강삼(정읍), 방진성(임실)

주제  
인구감소와 지역문화  
2모둠 참여자  
김동영(전주), 함경복(남원), 이채하(정수), 김드현(정수), 김수현(전주), 차진희(남원)





2022

## 전라북도 문화비리협의회

### 진행

고창문화관광재단

부안군문화재단

완주문화재단

익산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주문화재단

기록자

박종철, 봉두만

이주환

신인혜

김지은, 김수경

정승민, 노진아, 이승연

김선정, 손경은

이선희

### 발행처 | 고창문화관광재단

본 자료집에 실린 글은 저작권자와 발행처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북권 6개 문화재단(고창문화관광재단, 부안군문화재단, 완주문화재단, 익산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주문화재단)의 공동 협력으로 제작되었습니다.